

# 명종~선조대 압록강 방면 여진족 집단들과 조선\*

이재경\*\*

1. 머리말
2. 명종~선조 초반 압록강 중상류 여진족 구축 노력과 그 한계
  - 1) 명종대: 문제의 계승과 소극적 대처
  - 2) 선조대: 의욕적 개입과 군사적 교착
3. 누르하치의 建州女眞 통합 전야 압록강 방면 여진족 집단 현황
  - 1) 「滿浦鎮胡地相距部落多少與據情抄記」의 사료적 성격
  - 2) 압록강 중상류의 溫河衛
  - 3) 압록강 이북의 建州女眞
4. 16세기 중후반 압록강 방면 여진족-조선 관계의 실상
  - 1) 여진족 部落의 “歸順”: 宴享과 開市
  - 2) 征討와 羈縻: ‘對外政策’에서 ‘邊境政策’으로
5. 맷음말

## 1. 머리말

16세기 중후반, 압록강 방면 여진족 사회는 중요한 변화를 겪고 있었다. 압록강 이북에서 주도권을 발휘했던 建州三衛는 16세기 전반부터 해체되어 가고, 각 지역의 실력자들이 항쟁하는 전란의 시대가 펼쳐지고 있었다.<sup>1)</sup> 한편, 廢四郡을

\* 이 연구는 아모레퍼시픽재단의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강사.

1) 杉山清彦, 2015 『大清帝國の形成と八旗制』, 名古屋: 名古屋大學出版會, 26-29면.

비롯한 압록강 중상류 유역에는 溫河衛로 불리는 집단이 형성되었다. 溫河衛는 『滿洲實錄』에 “yalu giyang ni aiman(golo)”로<sup>2)</sup> 불리는 집단으로서, 성종~중종 대부분 두만강 하류에서 소규모 단위로 이주해 온 여진인들로 구성되었다.<sup>3)</sup> 이들은 조선과 직접적으로 경계를 접하면서 빈번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 압록강 방면 여진족 집단들과 조선의 관계에 대해 우리가 아는 바는 그다지 많지 않다. 일찍이 河內良弘은 중종~명종대의 조선-여진 관계를 개관하였고,<sup>4)</sup> 김순남은 여진인들의 廢四郡 지역 거주 과정, 중종 19년(1524)<sup>5)</sup> 조선의 여진인 구축 시도의 경과, 이후 격화된 여진과의 갈등을 중종 23년(1528) 만포첨사 沈思遜이 살해되는 시점까지 상세히 추적하였으며,<sup>6)</sup> 해당 시기 滿浦僉使와 滿浦鎮이 여진과의 관계에서 수행한 역할에 대해서도 고찰하고 있다.<sup>7)</sup> 또한 劉陽은 조선의 廢四郡 문제에 대한 대응을 통시적으로 개관하면서 중종대 여진 구축 논의 및 시도를 다루었다.<sup>8)</sup> 하지만 기존의 논저들은 해당 시기의 주요 사건들을 전반적으로 간략히 언급하는 데 그치거나, 중종 후반 이후에 대한 서술 및 평가가 매우 소략하다. 그 결과 명종대부터 선조 22년(1589) 누르하치의 建州女眞 통합에 이르는 시기에 조선이 압록강 방면 여진족 집단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는 연구사적 공백으로 남겨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sup>9)</sup>

2) 『滿洲實錄』(중화서국 영인본) 卷1, 20下면; 卷2, 辛卯年(1591). 한자로는 “鴨綠江部(路)”이다.

3) 溫河衛에 대한 기존의 연구로는 다음의 논저들이 있다. 三田村泰助, 1961 「朝鮮側史料より見た清初の疆域：主として鴨綠江方面」『朝鮮學報』21·22; 河内良弘, 1966 「溫河衛考：朝鮮史料による明代滿州歴史地理考証」『朝鮮學報』37·38; 張士尊, 2007 「建洲女眞董鄂部族源考」『東北史地』2007-2; 박정민, 2017 「溫河衛의 성립과 조선과의 관계：성종~연산군대를 중심으로」『軍史研究』143. 다만 이들은 만주어 사료에 거의 등장하지 않아, 그 실체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4) 河内良弘, 1992 『明代女眞史の研究』, 京都: 同朋舎, 676-715면.

5) 본고의 일자 표기는 모두 음력이며, 참고를 위해 서력 연도를 부기한다.

6) 김순남, 2010a 「조선 中宗代의 북방 野人 驅逐」『朝鮮時代史學報』54.

7) 김순남, 2010b 「조선전기 滿浦鎮과 滿浦僉使」『史學研究』97.

8) 劉陽, 2018 「朝鮮王朝前期의“廢四郡”問題研究」『暨南史學』2018-1.

9) 누르하치는 선조 21년(1588) 建州女眞 諸部를 실질적으로 통일하였으나, 그 잔존세력을 완전히 병탄한 것은 이듬해의 일이다. 増井寛也, 2004 「建州統一期のヌルハチ政權とボオイニヤルマ」『立命館文學』587, 393면.

이는 무엇보다도 사료의 제약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연산군대부터는 『朝鮮王朝實錄』의 여진인 來朝 기사가 급감하며, 명종대에는 여진 관련 사료 자체가 크게 감소한다. 아울러 임진왜란으로 인해 전쟁 이전의 『宣祖實錄』은 부실함을 면치 못한다.

그러나 사료의 부재가 반드시 실상의 부재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 박정민은 여진인 來朝 기사가 급감한 연산군~명종대에도 여진인의 來朝가 계속되었음을 논증하였으며, 관련 기록의 감소는 대명관계와 당대 위정자의 시각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추측하였다.<sup>10)</sup> 이는 두만강 유역을 주 대상으로 삼은 것이지만, 압록강 방면에 대해서도 유사한 현상이 존재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주지하듯이 建州女眞을 통합한 누르하치 세력이 이후 조선에 압력을 가하며 조선의 對女眞 관계의 성격을 질적으로 변화시켰음을 감안하면, 그 이전 시기 조선이 압록강 방면에 거주하는 여진족 집단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고, 그들과 어떤 방식으로 접촉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이후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라 생각된다.

이런 상황에서 사료의 부재를 일부 해결해주는 자료가 최근 새로 발견된 「滿浦鎮胡地相距部落多少與擄情抄記」이다. 후술하듯이 「滿浦鎮胡地相距部落多少與擄情抄記」는 선조 21년(1588) 전후 滿浦鎮에 왕래하는 여진인들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작성된 기록으로서, 관찬사료에 드러나지 않는 압록강 부근 여진족 집단들의 실태와 조선과의 관계에 대하여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建州女眞·溫河衛 등<sup>11)</sup> 압록강 방면 여진족 집단들과 조선이 맺었던 관계의 실상을 명종~선조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장에서는 명종대에서 선조대 초반에 걸쳐 이루어진 압록강 중상류 여진족 구축 노력과 그

10) 박정민, 2015 『조선시대 여진인 내조 연구』, 景仁文化社, 165-198면.

11) 建州女眞·溫河衛는 모두 명의 衛所名에서 기원한 타칭이므로, 만주어 사료의 용례에 따라 만주 5部 및 鴨綠江部로 칭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조선측 사료에서 이들을 建州衛·溫河衛로 지칭하고 있으며, 기존 연구에서도 建州女眞·溫河衛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압록강 이북에 거주하는 여진족 집단들을 建州女眞, 압록강 중상류 유역에 거주하는 여진족 집단들을 溫河衛로 통칭한다. 다만 후술하듯이 상류 惠山鎮 주변에 거주하는 여진족은 毛憐衛로 분류되었던 듯하다.

한계를 추적할 것이다. 3장에서는 「滿浦鎮胡地相距部落多少與擄情抄記」의 사료적 가치와 내용을 소개하고, 이를 토대로 누르하치의 建州女眞 통합 전야 滿浦鎮과 관계를 맺고 있던 압록강 방면 여진족 집단들의 현황을 검토할 것이다. 4장에서는 조선이 16세기 중후반 압록강 방면 여진인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이를 거시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 살펴보자 한다. 본고를 통해 16세기 중후반 조선-여진 관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조선 전기 압록강 유역 對 여진 관계를 거시적 관점에서 조망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 2. 명종~선조 초반 압록강 중상류 여진족 구축 노력과 그 한계

### 1) 명종대: 문제의 계승과 소극적 대처

중종 19년(1524) 废四郡 지역 여진인에 대한 군사적 驅逐이 실패로 돌아간 이후, 중종 말까지도 여진인들의 불법 거주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다. 조선은 원칙상 废四郡에 여진족의 거주를 인정하지 않았을 뿐더러,<sup>12)</sup> 영토 바깥이라도 滿浦鎮 등 邊鎮 인근에 사는 여진족을 “門庭의 寇賊”으로 여겨 驅逐 대상으로 간주했으나,<sup>13)</sup> 현실은 이와 거리가 있었다. 이들의 거주 지역은 滿浦 주변, 惠山 인근 등으로 확대되어<sup>14)</sup> “압록강 어귀를 메울 기세”라거나,<sup>15)</sup> “江界 이북은 저들의 소굴이 되어 있다”는 한탄이 나오고 있었다.<sup>16)</sup> 이들의 수도 계속 증가하여, “三水에서 閻延·茂昌까지 와서 사는 야인들이 4~5천이나 되었고, 朔州에서 滿浦의 근처까지 와서 사는 야인들이 또한 3~4천을 밑돌지 않았습니다.”라는 평

12) 『中宗實錄』 卷80, 중종 30년 11월 16일(계유).

13) 『明宗實錄』 卷14, 명종 8년 6월 2일(정축); 卷16, 명종 9년 1월 27일(무진).

14) 『中宗實錄』 卷87, 중종 33년 4월 19일(임술); 卷89, 중종 34년 3월 5일(계유); 卷90, 중종 34년 4월 29일(병인); 卷94, 중종 35년 10월 11일(기사); 卷95, 중종 36년 7월 5일(기축); 卷97, 중종 36년 12월 28일(기묘), 중종 37년 1월 24일(을사).

15) 『中宗實錄』 卷80, 중종 30년 11월 16일(계유).

16) 『中宗實錄』 卷97, 중종 36년 12월 28일(기묘).

가가 있을 정도였다.<sup>17)</sup>

조선이 이에 대해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평안도에서는 珂四郡 및 滿浦 인근 지역에 때때로 병력을 보내어 體探하였으며,<sup>18)</sup> 현장 지휘관들과 조정 신료들 사이에서는 번번이 군사적 조치가 논의되기도 하였다.<sup>19)</sup> 하지만 군사적 강경책은 현실적 이유로 인해 실행에 옮겨지지 못하였고,<sup>20)</sup> 중종 스스로도 “곡식을 밟아 없애고 부력을 구축해도 오래지 않아서 도로 전같이 모여들어 살고 있으니, 군졸에게 폐만 끼칠 뿐 아무 유익함이 없다.”고 할 정도로 효과도 의문 시되었다.<sup>21)</sup>

이러한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명종대 조선 조정은 이 문제에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 명종 2년(1547), 掌令 南應雲은 林土 지방에 거주하는 여진인들의 세력이 점차 불어나고 있음을 지적하며, 조선 영토 밖이기는 하지만 江界에서 너무 가까우니 군사적 조치를 취할 것을 주장하였다.<sup>22)</sup> 그러나 영의정 尹仁鏡을 비롯한 대부분의 중신들은 여진족들이 閩延과 茂昌에 거주하는 것도 금하지 못하였는데 저들의 땅인 林土에 거주하는 것을 금할 수 없으며, 閩延과 茂昌에 대한 征討

17) 『中宗實錄』卷102, 중종 39년 4월 16일(갑신).

18) 『中宗實錄』卷63, 중종 23년 10월 19일(정사); 卷81, 중종 31년 2월 29일(갑인), 4월 1일(을유), 2일(병술), 4일(무자), 24일(무신). 體探이란 적지에 군사를 들여보내 수색정찰을 행하는 것을 가리킨다. 세종대 體探의 운영 실태는 이규철, 2007 「조선초기(태조대~세종대) 대외정보 수집활동의 실상과 변화」『역사와 현실』65, 309~311면 참고.

19) 『中宗實錄』卷87, 중종 33년 4월 19일(임술); 卷91, 중종 34년 8월 29일(계사); 卷95, 중종 36년 7월 5일(기축); 卷97, 중종 36년 12월 24일(을해), 28일(기묘), 중종 37년 1월 15일(병신), 20일(신축).

20) 『中宗實錄』卷91, 중종 34년 8월 30일(갑오); 卷93, 중종 35년 9월 28일(병진); 卷96, 중종 36년 10월 12일(갑자); 卷97, 중종 36년 12월 24일(을해), 중종 37년 1월 24일(을사), 3월 3일(계미).

21) 『中宗實錄』卷91, 중종 34년 9월 11일(을사). 또한 『中宗實錄』卷93, 중종 35년 9월 28일(병진) 기사도 참조.

22) 『明宗實錄』卷5, 명종 2년 2월 5일(정해). 林土는 林投라고도 하며, 滿浦에서 50리 거리에 있었다고 한다[『中宗實錄』卷97, 중종 37년 1월 24일(을사)]. 이 지역에 거주하는 여진인을 몰아내야 한다는 지적은 중종대 후반부터 이어져 왔다. 『中宗實錄』卷81, 중종 31년 2월 29일(갑인), 4월 1일(을유); 卷95, 중종 36년 7월 5일(기축); 卷97, 중종 36년 12월 28일(기묘).

역시 가볍게 할 수 없다는 소극적 입장은 보였다.<sup>23)</sup> 이듬해에는 평안도 上土鎮·楸子口子에서 각각 體探에 나섰다가 여진인들과 조우, 일부를 사살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명종은 邊將이 공을 세우기 위해 살인을 하다가 혼단이 생길 것을 경계하라고 명령하는 데 그쳤다.<sup>24)</sup> 당시 조정에서는 罷四郡 일대의 여진인 문제를 단기적으로 해결 가능한 것으로 보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명종 5년(1550)에는 평안병사 方好義 등이 滿浦 인근의 梨坡[梨巴]·林投[林土]·照牙坪·波湯洞 등 4屯의 여진인들을 회유하여 철거시키는 데 성공하였다.<sup>25)</sup> 중종대부터 撤還시키지 못했던 여진족들을 군사행동 없이 철수시킨 성과였으므로,<sup>26)</sup> 명종은 方好義 등에게 加資 등의 후한 상을 내렸다.<sup>27)</sup> 그러나 대간에서는 이들에 대한 상이 너무 과하다고 비판하였으며, 나아가 이들의 처벌을 주장하였다. 비판의 이유는 크게 네 가지였다. 첫째, 利害와 속임수로 여진인들을 이주시킨 것은 국가의 수치로서 상을 베풀 만한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다.<sup>28)</sup> 둘째, 여진인들이 영구히 이주한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이주하였다가 다시 돌아올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다.<sup>29)</sup> 셋째, 여진인들이 실제로 이주하였는지, 이주하였더라도 다 이주하였는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sup>30)</sup> 넷째, 여진인들이 이주한 지역이 조선 국경 밖이 아니라 罷四郡 지역 내의 茂昌이었다는 것이다.<sup>31)</sup> 이로 인해 대간에서는 실적을 부풀려 欺罔하였다고 하며 方好義 등의 과적 및 추국을 요청하였으나, 명종은 論賞만 철회하였을 뿐 처벌은 끝내 거부

23) 『明宗實錄』 卷5, 명종 2년 2월 5일(정해), 9일(신묘).

24) 『明宗實錄』 卷8, 명종 3년 9월 2일(갑술), 3일(을해).

25) 『明宗實錄』 卷10, 명종 5년 8월 16일(정축); 卷12, 명종 6년 12월 1일(갑인); 卷14, 명종 8년 6월 2일(정축). 이에 대해서는 河內良弘, 앞의 책, 704면에 경과와 비판의 일부가 간단히 언급되어 있다.

26) 『明宗實錄』 卷11, 명종 6년 3월 9일(정유).

27) 『明宗實錄』 卷10, 명종 5년 8월 16일(정축), 17일(무인).

28) 『明宗實錄』 卷11, 명종 6년 3월 9일(정유); 卷12, 명종 6년 12월 1일(갑인); 卷13, 명종 7년 2월 12일(갑자).

29) 『明宗實錄』 卷11, 명종 6년 3월 9일(정유).

30) 『明宗實錄』 卷14, 명종 8년 6월 2일(정축), 5일(경진); 卷16, 명종 9년 1월 27일(무진).

31) 『明宗實錄』 卷11, 명종 6년 3월 22일(경술); 卷12, 명종 6년 12월 1일(갑인).

하였다.<sup>32)</sup>

비판에도 불구하고, 方好義 등의 회유책은 4屯 지역에서 여진인들을 철수시키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sup>33)</sup> 그러나 그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이번에는 4屯과 가까우면서 마찬가지로 滿浦 부근에 위치한 西海坪의 여진인들이 문제의 불씨가 되었다. 西海坪은 江界에서 좁고 험한 虛空橋의 길을 지나가야 하는 곳으로서, 토지가 비옥하여 여진인들이 와서 살기 적합하였다.<sup>34)</sup> 명종 12년(1557), 西海坪에 거주하던 여진인들이 바라보이는 곳에서만 물려갔을 뿐 보이지 않는 곳에는 그대로 거주하며, 철거를 요구해도 저항하였다는 보고가 들어왔다.<sup>35)</sup> 명종 19년(1564)에는 평안도에서 西海坪 지역의 여진인들이 집을 짓고 농사를 지으니 금단 할 것을 요청하기에 이르렀으나, 조정에서는 이듬해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였다.<sup>36)</sup>

명종 20년(1565) 8월, 평안병사 金德龍은 虞候 奉訴과 渭原郡守 鄭承憲 등으로 하여금 300명의 병력을 이끌고 西海坪 지역을 體探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습격을 당해 사망자만 100여 명에 이르는 참패를 당하였다.<sup>37)</sup> 여진인들은 昌城府 부근의 압록강 북쪽 지역에서 불을 지르고 횡행하는 등 西海坪 體探에 대해 분풀이를 하는 듯한 행동에 나서기도 했다.<sup>38)</sup> 그동안 소극적으로 대처해

32) 『明宗實錄』 卷11, 명종 6년 3월 23일(신해)-28일(병진), 30일(무오), 4월 1일(기미)-5일(계해), 7일(을축)-10일(무진), 13일(신미).

33) 『明宗實錄』 卷16, 명종 9년 1월 27일(무진). 方好義는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비난받은 데 대해 불만이 많았다고 한다. 李濟臣, 『淸江集』 卷3, 誌銘 「有明朝鮮國資憲大夫知中樞府事兼知訓鍊院事五衛都摠府都摠管平陽君金公墓誌銘」(金舜臯) “公之友方好義 曾帥關西 諭撤四屯胡落 論者攻以欺罔 方懃曰 吾自今無意國事”

34) 李珥, 『經筵日記』(율곡전서 수록본) 隆慶 2년 戊辰 5월. 이하 『眉巖日記』 기사가 『宣祖實錄』에, 『經筵日記』 기사가 『宣祖修正實錄』에 전재된 경우 따로 주기하지 않는다. 『眉巖日記』·『經筵日記』와 『宣祖實錄』·『宣祖修正實錄』 기사의 대응관계는 宋宰鏞, 1998 「『眉巖日記』의 書誌와 史料的 價值」 『退溪學研究』 12, 137-139면 및 141-151면의 日字對照表(1567~1577)를 참고.

35) 『明宗實錄』 卷23, 명종 12년 9월 18일(무진).

36) 『明宗實錄』 卷30, 명종 19년 5월 5일(병오).

37) 『明宗實錄』 卷31, 명종 20년 9월 5일(무술), 11월 9일(임인); 李珥, 『經筵日記』 隆慶 2년 戊辰 5월. 또한 『宣祖實錄』 卷12, 선조 11년 2월 23일(갑진) 참고. 이때 西海坪에서의 충돌과 정벌 논의의 존재는 河內良弘, 앞의 책, 704-705면에 간략히 소개되어 있다.

38) 『明宗實錄』 卷31, 명종 20년 11월 30일(계해).

왔던 조선 조정으로서도 이러한 사태는 묵과하기 힘들었다.

조선 조정은 金秀文·李思曾 등 숙련된 장수들을 평안병사로 삼고 병력과 군량을 조달하는 등 본격적으로 정벌 준비를 시작했다.<sup>39)</sup> 李思曾은 날씨가 너무 추운 1~2월과 비로 인해 행군에 애로가 생길 수 있는 초여름을 피해 강물이 출고 곡식이 수확되지 않았을 늦여름에서 초가을에 군사를 일으켜야 한다고 견의하였다. 이에 대해 비변사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현장에 다시 의논하여 시기를 고르게 하였다.<sup>40)</sup>

그러나 이때 원정이 곧바로 실현되지는 않았다. 명종 21년 1월 7일, 홍문관부 제학 尹毅中은 군사행동의 명분이 부족하고 기근으로 군사를 일으키기 어려우니, 방비를 강화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며 西征에 반대하였다.<sup>41)</sup> 이를 받아들인 명종은 3월 2일 星變을 이유로 초여름으로 예정된 出兵을 공식적으로 정지시켰다.<sup>42)</sup> 11월에는 평안감사 金德龍과 병사 吳誠이 이듬해 4월에 土兵 2천 명을 보내어 西海坪을 토벌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비변사에서 형편상 경솔히 거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일단 연기하도록 청해 윤허를 받았다.<sup>43)</sup> 결국 西海坪에 대한 군사행동은 선조대에 이르러서야 실현되기에 이른다.<sup>44)</sup>

39) 『明宗實錄』 卷31, 명종 20년 11월 16일(기유), 22일(을묘): 李珥, 『栗谷全書』 卷12, 書(四) 「代肅川府使上平安兵使金秀文(府使卽先生婦翁盧公慶麟○丙寅)」.

40) 『明宗實錄』 卷32, 명종 21년 1월 1일(계사). 李珥 역시 그의 장인인 肅川府使 卢慶麟을 대신해 올린 글에서 봄여름 사이에 군사를 일으켜야 한다는 의견을 표시한 바 있었다. 李珥, 『栗谷全書』 卷12, 書(四) 「代肅川府使上平安兵使金秀文(府使卽先生婦翁盧公慶麟○丙寅)」. 이 글은 명종 21년(1566)에 올린 것으로 되어 있으나, 『明宗實錄』에 따르면 평안병사는 명종 20년 11월 22일에 李思曾으로 교체되었으므로, 명종 20년에 올린 글로 판단된다.

41) 『明宗實錄』 卷32, 명종 21년 1월 7일(기해).

42) 『明宗實錄』 卷32, 명종 21년 3월 2일(계사).

43) 『明宗實錄』 卷33, 명종 21년 11월 8일(갑자).

44) 선조대 초반 西海坪에 대한 군사활동에 대해서는 박정민, 앞의 책, 201-202면 및 박정민, 2016 「조선 중기 武將 최호의 북방 활동」 『白山學報』 105, 86면에서 간략히 언급하고 있으나, 자세한 고찰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 2) 선조대: 의욕적 개입과 군사적 교착

선조가 즉위한 뒤 조정은 西海坪 공격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선조 원년(1568) 3월 26일 金秀文을 평안병사로 임명하여<sup>45)</sup> 작전을 총괄하도록 하였으며, 4월 29일에는 應敎 柳希春과 左議政 權轍이 명종대 草島 攻討 때의 잘못을 거울삼아 婦女를 살해하지 못하도록 下諭할 것을 주장하는 등,<sup>46)</sup>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하여 하달했던 것으로 보인다.

선조 원년 5월 19일, 평안병사 金秀文이 이끄는 조선군은 西海坪을 습격하여 10여 家를 불태우고 14頭를 참획하였다.<sup>47)</sup> 이 전투에는 昌城府使 金富仁,<sup>48)</sup> 江界府使 張弼武 등이 참전하였다.<sup>49)</sup> 이에 대해 조정에서는 원정에 참여한 장수들에게 加資하는 등 포상하였다.<sup>50)</sup> 비슷한 시기에 南兵使 邊協은 三水 방면 古未坪 지역의 여진인들을 開諭하여 철거시켰다.<sup>51)</sup> 비록 滿浦·三水 부근에 한정되기는 했지만, 중종 19년 이후 오래간만에 동서 양쪽에서 瘦四郡 지역의 여진족을 압박했던 것이다.

그러나 공격의 성과가 불충분했음이 곧 드러났다. 金秀文은 새벽에 공격하여 여진인들을 섬멸해 버리려 하였으나, 江界府使 張弼武가 미처 포위가 완성되기

45) 『眉巖日記』(朝鮮史料叢刊 第8) 1책, 戊辰年(1568) 3월 26일.

46) 『眉巖日記』 2책, 戊辰年(1568) 4월 29일.

47) 『眉巖日記』 2책, 戊辰年(1568) 5월 28일.

48) 金應祖, 『鶴沙集』 卷7, 墓碣銘 「折衝將軍守慶尙左道兵馬節度使金公墓碣銘(并序)」(金富仁); 金圻, 『北厓集』 卷3, 狀 「先考折衝將軍守慶尙左道兵馬節度使府君家狀」(金富仁).

49) 李珥, 『經筵日記』 隆慶 2년 戊辰 5월; 宋煥箕, 『性潭集』 卷19, 墓碣 「兵使贈判書張公墓碣銘」(張弼武).

50) 이에 대해 加資는 지나치다는 비판도 있었다. 吳健, 『德溪集』 卷4, 啓 「請改正金秀文崔遠加資啓」.

51) 李廷龜, 『月沙集』 卷42, 神道碑銘 上 「贈左議政行工曹判書邊公神道碑銘(并序)」(邊協) “己巳(중략) 旋授南道兵使(중략) 古未坪舊棄于虜 公啟言 土地不可與人 遂諭出之 盡撤其居 辛未 陞嘉善 爲北道兵使” 『北路紀略』 卷3, 「劍川以下諸部落」에는 거의 동일한 내용을 선조 2년(1569: 己巳)의 일로 기록하고 있으나, 邊協이 남병사가 된 것은 선조 3년(1570) 12월 26일이므로[『宣祖實錄』 卷4, 선조 3년 12월 26일(기미)], 古未坪 철거는 선조 4년(1571) 그가 북병사로 제수되기 이전에 일어난 사건으로 추정된다. 古未坪[古未介]의 위치는 <그림 1>을 참고.

전 나팔을 불고 진군하였기 때문에, 壇丁들은 어둠을 타고 많이 도망가 버렸다고 한다.<sup>52)</sup> 또한 西海坪 공격 직전인 5월 13일에 압록강 건너의 여진족들이 기병 100여 명과 보병 다수를 동원해 上土鎮을 포위한 바도 있어, 이후에도 西海坪 지역 여진족들의 잔당이 주변 집단들을 끌어들여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남아 있었다.<sup>53)</sup>

실제로 西海坪 지역의 여진족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왔고, 조선은 다시 그들이 농사지은 곡식을 베어버리는 방식으로 대응하였다. 선조 5년(1572) 8월, 평안병사 李大伸은 虞侯 李鵬으로 하여금 군사를 이끌고 西海坪으로 가서 伐穀하도록 하였다. 李鵬은 곡식을 베어버리고 거주지를 불태우는 데는 성공하였으나, 돌아오는 길에 소수의 여진인들에게 습격을 받자 전군이 당황하여 폐주하는 사태가 벌어졌다.<sup>54)</sup> 비록 사상자 수는 많지 않았으나, 조선군의 취약함을 여실히 드러내어 조야에 큰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었다.<sup>55)</sup> 조정에서는 李大伸·李鵬 등을 체포, 처벌하는 한편,<sup>56)</sup> 2品 이상의 중신들로 하여금 西海坪에 대한 征討를 의논하게 하였다.<sup>57)</sup> 이때 군사를 일으켜 보복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판중추부사 李鐸은 천재지변과 병력의 不備를 이유로 반대하였다. 결국 선조가 반대론을 따름으로써 보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sup>58)</sup>

이후에도 西海坪에는 지속적으로 伐穀이 시도되었다. 선조 7년(1574) 7월, 평

52) 李珥, 『經筵日記』隆慶 2년 戊辰 5월.

53) 『眉巖日記』2책, 戊辰年(1568) 5월 20일, 23일; 吳健, 『德溪集』卷4, 啓「請改正金秀文崔遠加資啓」. 李滉 역시 이에 대해 염려하였다. 李滉, 『退溪集』卷30, 書「答金而精」(庚午: 1570); 『退溪集攷證』卷6, 第30卷 書「答金而精」.

54) 李珥, 『經筵日記』隆慶 6년 壬申 8월; 『眉巖日記』7책, 壬申(1572) 12월 16일, 癸酉年 (1573) 2월 20일, 25일.

55) 李珥, 『經筵日記』隆慶 6년 壬申 8월 “謹按 是時軍令解弛 上下不能相管 以全師侵小醜 而衆心尙懷危懼 一胡發矢而三軍驚北 一大呼而軍令始行 若以此軍遇胡騎百餘 則必敗無疑 況遇勍敵乎 嘴呼 煙哉”

56) 許震童, 『東湘集』卷7, 朝廷錄(1572) 9월 1일, 6일; 李珥, 『經筵日記』隆慶 6년 壬申 8월; 李濟臣, 『清江集』卷4, 碑銘「折衝將軍守全羅道兵馬節度使李公神道碑銘」(李大伸).

57) 『眉巖日記』8책, 癸酉年(1573) 7월 10일.

58) 李珥, 『栗谷全書』卷18, 行狀「領議政李公行狀」(李鐸); 『眉巖日記』8책, 癸酉年(1573) 8월 6일.

안병사 蘇滄은 上土鎮에 병력을 집결시켜 伐穀에 나섰다. 하지만 伏兵將 外叱怪 權管 白光彥이 강변에서 소를 치던 여진인들을 발견하고 전원 사살을 시도하였으나, 한 명이 빠져나가면서 출병 사실이 알려지고 말았다. 이로 인해 조선군은 龍陣할 수밖에 없었다.<sup>59)</sup> 선조 5년과는 달리 伐穀 자체를 시도해보지도 못하고 돌아온 것이다. 조정에서는 蘇滄·白光彥을 잡아들여 처벌하고,<sup>60)</sup> 모친상을 마친邊協을 평안병사에 등용하여 사태 수습에 나섰다. 边協은 선조 10년(1577)에 체직되기까지 강경책과 온건책을 병용하여 변경의 안정에 힘쓸으로써, 상황을 어느 정도 진정시킨 것으로 보인다.<sup>61)</sup>

하지만 연이어 군사적으로 추태를 드러낸 후폭풍은 컸다. 당시 조야에서는 어이없는 패배에 대해 깊이 한탄하였으며,<sup>62)</sup> 군제의 문제점과 군기의 해이는 개혁 대상으로 지목되기도 하였다. 대표적으로 2차 西海坪 伐穀의 실패 4개월 후, 趙憲은 “해마다 關西의 兵馬를 움직여서 한 部落의 보잘것없는 오랑캐에게도 위신을 펴보지 못하니, 만일 강한 적을 만나게 되면 순식간에 흙이 무너지듯 와해될 것이 분명합니다.”라고 한탄하고, 內地로부터 많은 병력을 동원하기보다는 군기를 확립하고 훌륭한 지휘관과 강변의 土兵을 활용할 것을 주장하였다.<sup>63)</sup>

西海坪 伐穀이 실패로 돌아간 이후 약 10년간, 압록강 유역에 거주하는 여진인들의 동태는 사료상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sup>64)</sup> 그러나 선조 18년(1585) 楸坡萬

59) 『眉巖日記』 9책, 甲戌年(1574) 8월 7일. 한편 金圻, 『北厓集』 卷3, 狀「先考折衝將軍守慶 尚左道兵馬節度使府君家狀」(金富仁)에 따르면 갑자기 雷雨가 내려 도로가 통하기 어려워 병력이 들어가지 못하였다고 한다.

60) 『眉巖日記』 9책, 甲戌年(1574) 8월 7일.

61) 李廷龜, 『月沙集』 卷42, 神道碑銘 上 「贈左議政行工曹判書邊公神道碑銘(并序)」(邊協)  
“壬申 丁母憂 西海坪虜巢漸盛 帥臣屢失律 朝廷憂之 待公服闋 卽拜平安兵使 公條上方略  
一以蘿獮 一以拊綏 恩威遠播 虜不敢近境 上嘉獎 加留公一年 難其代也 丁丑 遞拜漢城右  
尹 兵曹參判”

62) 具鳳齡, 『柏潭集』 卷3, 五言律詩 「金武士坦挽詞(定牧金伯榮之子)」; 林悌, 『林白湖集』 卷1, 五言長篇 「見朝報選將帥四十八人材之盛前古無比」. 다음 사료는 약간 후대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나, 이때의 충격이 지속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沈光世, 『休翁集』 卷2, 五言古詩 「四郡」 “年年西海坪 出師伐禾稼 師徒多失律 赤子飼豺虎”

63) 趙憲, 『重峯集』 卷3, 疏 「質正官回還後先上八條疏(甲戌十一月)」.

64) 이는 『眉巖日記』가 선조 10년(1577)에 끝나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戶 金仁秀가 體探에 나섰다가 牛古介嶺 아래에서 여진인 20여 명과 교전하여 패주시킨 것으로 볼 때,<sup>65)</sup> 지속적으로 體探을 통하여 해당 지역의 여진인들을 견제하려 했던 것으로 추측된다.<sup>66)</sup> 다만 이것이 얼마나 성과를 거두었는지는 연대기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없다.

이후 선조 20년(1587)부터는 여진족들이 甲山·惠山을 빈번하게 침입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sup>67)</sup> 조선 역시 古未坪 部落을 焚蕩함으로써 대응하게 되는데,<sup>68)</sup> 이는 建州女眞을 통일해 나가던 누르하치가 압록강 중상류 지역의 여진족 집단들에 압박을 가한 결과로 추측된다.<sup>69)</sup> 이 시점부터 조선은 새로이 등장한 누르하치의 세력과 마주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상 명종대와 선조대 전반 압록강 중상류 여진족에 대한 조선 조정의 대응을 살펴보았다. 명종대는 문제를 물려받아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였다. 현장에서 회유책이 시도되기도 했으나 그 효과는 제한적이었고, 西海坪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음에도 적극적 대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면 선조대 전반에는 조정 차원에서 의욕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섰고, 金秀文·邊協과 같은 유능한 현지 지휘관의 존재에 힘입어 일시적으로 征討 및 開諭를 통해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그러나 이후 군사적 취약성을 보이면서 궁극적 문제 해결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결국 이 문제는 누르하치의 대두 이전 지속적으로 조선 조정을 괴롭힌 문제로 남았던 것이다.

하지만 명종~선조대 조선의 여진족 驅逐 노력이 실제 어떤 성과를 거두었으며, 그것이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고찰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기 압록강 일대에 여진족이 얼마나 살고 있었으며, 그들이 조선과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별도의 자료를 통해 접근해 보고자 한다.

65) 『宣祖實錄』 卷19, 선조 18년 9월 13일(경진).

66) 박정민, 2016 앞의 논문, 86-87면의 주32도 이를 시사한 바 있다.

67) 『宣祖實錄』 卷21, 선조 20년 8월 26일(계미), 9월 24일(경술); 卷22, 선조 21년 2월 16일(기사), 11월 8일(정사).

68) 『宣祖實錄』 卷22, 선조 21년 윤6월 2일(계미), 7월 1일(임자).

69) 『宣祖實錄』 卷23, 선조 22년 7월 12일(정사); 『北路紀略』(아세아출판사 영인본) 卷3, 「劍川以下諸部落」“萬曆庚寅 建州衛酋火落赤 自古味浦 入劍川岐 抄掠而去”

### 3. 누르하치의 建州女眞 통합 전야 압록강 방면 여진족 집단 현황

#### 1) 「滿浦鎮胡地相距部落多少與擄情抄記」의 사료적 성격

규장각 소장 『政論』(奎7068)은 필사본이며, 序跋文 및 朝鮮總督府 이전의 藏書印이 없어 저자나 편찬 경위, 소장 이력 등을 파악할 수 없다. 다만 규장각 해제에는 청의 문물을 적은 것으로 보아 조선 후기의 책이라고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sup>70)</sup> 『政論』은 목차도 없고 編次도 되어 있지 않으나, 다음의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sup>71)</sup>

- (1) 五家統 · 延英院 · 軍資別倉 · 內需 등을 조목별로 논한 상소문(1a-4b면)
- (2) 良役 폐단의 해결 방안을 상론한 상소문(5a-26a면)
- (3) 청의 각종 제도와 蒙古의 정세, 滿洲 일대의 상황 등을 기록한 연행록(27a-48b면)
- (4) 「滿浦鎮胡地相距部落多少與擄情抄記」: 유일하게 제목이 붙어 있는 부분으로, 溫大衛 · 左衛 · 建州衛 · 右衛 · 毛獮衛 등에 속한 部落의 위치 · 유력자 · 戶數 등의 정보를 기록한 글(49a-52b면)
- (5) 三水 · 甲山 지역의 경제상황을 다룬, 뒷부분이 결락된 상소문(53a-53b면)

본고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4) 「滿浦鎮胡地相距部落多少與擄情抄記」(이하 「抄記」)이다. 「抄記」의 사료적 가치는 최근에 이르러 비로소 인식되고 있는데,<sup>72)</sup> 이는 해당 기록의 성립시기가 불분명했기 때문이다. 기존 해제에서는 「抄記」 부분을 조선에 귀순한 여진인의 진술에 따라 滿浦鎮 이북의 청나라 지역에 있는 부락들의 현황을 기록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政論』의 성립시

70) 서울대학교 도서관 編, 1981 『奎章閣韓國本圖書解題』 IV(史部 1), 306면.

71) 이후에도 잡다한 메모가 2장 더 있으나, 일정한 주제를 발견할 수 없다.

72) 「抄記」를 최초로 활용한 연구로는 박정민, 2018a 「임진왜란기 조선과 전주여진의 교통로 복원: 『전주기정도기』를 중심으로」 『사학연구』 129를 참고. 또한 박정민, 2018b 「「滿浦鎮胡地相距部落多少與擄情抄記」를 통한 온하위 거주지의 재구성」 『역사와 현실』 109는 「抄記」의 정보를 본격적으로 활용하여 溫河衛 각 부락의 거주지를 비정한 연구로서, 본고 역시 해당 연구로부터 많은 시사를 받았음을 밝힌다.

기를 18세기 이후로 보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sup>73)</sup> 실제로 『政論』 전체에서 구체적인 연도가 나와 있는 것은 (3)에 언급된 康熙 22년(1683)과 康熙 48년 己丑(1709)이 전부이므로, 『政論』을 18세기 이후의 책으로 본 것은 합당하다. 하지만 「抄記」가 청대에는 있을 수 없는 溫大衛[溫河衛],<sup>74)</sup> 建州衛, 毛獮衛[毛憐衛] 등 女眞衛所의 상황을 기술하고 있는 점, 여진인을 조선에 “歸順”하는 존재로 서술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이 부분이 청대에 성립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이 문제는 『政論』이 저자와 시기, 출처가 다른 여러 가지 글을 모아놓은 책이라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1)은 李惟泰(1607~1684)가 현종 원년(1660)에 올린 「己亥封事」에서 일부를 발췌하고, 延英院에 대한 程子의 箴子 내용과 編者의 설명을 첨가한 것이다.<sup>75)</sup> (3)은 閔鎮遠(1664~1735)의 『燕行錄』에 함께 수록된 숙종 37년(1711)의 賚咨官 金慶門(1673~1737)의 手本 중 서두와 마지막 부분을 제외한 본문을 옮겨 적은 것이다.<sup>76)</sup> (1)과 (3)이 50년 간격으로 서로 다른 저자에 의해 만들어진 문서임을 감안하면, 『政論』이 단일 저자에 의한 저술이 아님은 확실하다. 따라서 『政論』이 18세기 이후에 편집된 책이라고 해서 「抄記」 역시 조선 후기에 저술되었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다.

그렇다면 「抄記」는 언제 누구에 의해서 작성된 글인가? 「抄記」는 年號가 없이 千支로만 연도를 표시하고 있으나, 실마리는 존재한다. 戊辰年 5월 金 判尹이 兵使였을 때 西海坪을 擊伐하고 焚蕩했다는 부분이 그것이다.<sup>77)</sup>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조선은 선조 원년(1568: 戊辰年)에 평안병사 金秀文의 지휘 하에 西海坪을 공격한 바 있다. 또한 金秀文이 이후 判尹에 제수되었기 때문에 金 判尹으로 불

73) 고구려연구재단 편, 2004 『조선시대 북방사 자료집』 1, 24-25면. 『政論』 가운데 (3) · (4)는 465-490면에 수록되어 있다. 본고에서 인용한 텍스트는 규장각에서 제공하는 마이크로필름 출력본을 기준으로 하였다.

74) 「抄記」는 溫河衛를 溫大衛로 표기하고 있는데, 이는 溫河衛의 異稱인 溫火衛의 오기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 원문 항목을 인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문 서술에서는 溫河衛로 통일한다. 毛獮衛로 표기된 毛憐衛에 대해서도 같은 원칙을 따른다.

75) 李惟泰, 『草廬集』 卷2, 疏「己亥封事(庚子五月承命封進)」.

76) 閔鎮遠, 『燕行錄』(국립중앙도서관 古0235-3-3) 「辛卯八月賚咨官金慶門手本」. 이 책은 林基中 編, 2001 『燕行錄全集』 34, 東國大學校 出版부에 異本이 영인되어 있다.

77) 「抄記」 溫大衛, 50a면.

렸음은 『眉巖日記』에서 확인된다.<sup>78)</sup> 이를 근거로 「抄記」에 기록된 干支의 연도를 확정할 수 있다. 「抄記」에 등장하는 가장 늦은 干支는 “去甲申年”, 즉 선조 17년(1584)이다.<sup>79)</sup>

이와 함께 「抄記」에 등장하는 建州衛의 “酋長 李以難主”가 성립연대의 하한을 추정할 단서를 제공한다.<sup>80)</sup> 후술하겠으나 李以難主는 선조 22년(1589) 7월에 누르하치에게 항복했다고 조선에 전해진 『宣祖實錄』의 李以難과 동일인물로 추정되고 있다.<sup>81)</sup> 따라서 「抄記」는 그 이전에 작성된 것이 분명하다.

마지막으로 「抄記」는 명에서 寬奠堡·長奠堡를 설치한 지 15년 이상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sup>82)</sup> 명에서 寬奠 6堡를 築設하기 시작한 것은 萬曆 원년(1573), 竣工한 것은 萬曆 4년(1576)의 일이다.<sup>83)</sup> 이러한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抄記」의 성립연대는 대략 선조 21년(1588) 경으로 판단된다.

「抄記」의 저자에 대해서는 정확한 고증이 불가능하다. 다만 다음을 통해 저술 목적과 배경을 짐작할 수 있을 따름이다.

胡地의 相距와 部落의 多少, 道路의迂直을 지난 100여 년 전에는 春秋로 體探하였으므로 江邊의 土兵들이 洞知하지 않음이 없어, 만일 事變이 있으면 조금도 防碍되는 바가 없었다. 지금은 體探을 영구히 폐기하고 故老는 이미 죽어 道路를 아는 자가 한 사람도 남아 있지 않으니 진실로 작은 염려가 아니며, 追擊·邀擊할 때 길을 가리키는 등의 일도 또한 한 사람도 상세히 아는 자가 없으니 邊將이 된 자로서 하나의 큰 欠事이다. 깊이 들어가 體探하는 일은 邊將이 비록 마음대로 할 수 없으나, 歸順하는 胡人 가운데 그開明한 자를 택하여 상세히 그 연유를 물으면 가히 알 수 있다. 다만 한두 胡人과의 問答을 믿기는 어렵고, 여러 胡人 가운데 그 사유를 많이 물어서 여러 사람이 똑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또한 가하다. 이에 首胡 등이 歸順하면 爰事が 직접 물어 그 대개를 간략히 抄錄하였다를 따름이다.<sup>84)</sup>

78) 『眉巖日記』 6책, 辛未年(1571) 10월 24일.

79) 「抄記」 溫大衛, 49b면.

80) 「抄記」 建州衛, 51a면.

81) 『宣祖實錄』 卷23, 선조 22년 7월 12일(정사).

82) 「抄記」 毛獮衛, 52a면.

83) 河內良弘, 앞의 책, 729-731면. 조선에서 寬奠堡의 설치 소식을 접한 것은 선조 7년(1574)의 일이다. 『宣祖修正實錄』 卷8, 선조 7년 4월 1일(을사).

84) 「抄記」 52a-52b면 “胡地相距 部落多少 道路迂直 往在百餘年前 春秋體探 故江邊土兵等

즉 여진족 지역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 彙順하는 여진인들에게 상세히 물어서 그 대략을 기록하였다는 것이다. 글의 제목이 「滿浦鎮胡地相距部落多少與據情抄記」인 점, 본인을 “僉事”로 지칭하고 있는 점, 글 전체에 吏讀가 널리 쓰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抄記」의 저자는 선조 21년 전후에 滿浦僉使로 재임했던 武官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이 시기 『宣祖實錄』의 不備로 인해 그의 이름은 확인할 수 없다. 또한 동시기에 증보되어 중앙에 보고되고 각鎮에 배포된 『制勝方略』과 달리, 「抄記」는 滿浦鎮 차원의 매뉴얼로 작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抄記」는 선조 21년 전후의 滿浦僉使가 당시 滿浦鎮에 왕래하는 여진인들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작성된 기록으로서, 이 시기 압록강 유역 여진족의 현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귀중한 사료이다. 특히 8년 뒤에 작성된 『建州紀程圖記』(1596)와 달리 누르하치가 建州女眞을 통일하고 압록강 유역에 진출하기 직전의 상황을 보여준다는 데서 그 가치가 배가된다. 또한 「抄記」는 조선이 이 지역의 여진족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다만 「抄記」에는 몇 가지 한계도 존재한다. 첫째, 필사가 부정확하며, 일부 구절을 누락하기도 하였다. 이는 필사자가 본문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로 필사하였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으며, 필사 이전부터 원문이 손상되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둘째, 正格 漢文과 吏讀를 쓴 조선식 漢文을 혼합한 문체로 서술되어 있으며, 그 결과 어순이 자주 바뀌고 문맥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셋째, 滿浦鎮 · 上土鎮에서 각 部落으로 가는 경로를 서술하고는 있으나, 설명이 극히 간략하다. 그나마 溫大衛[溫河衛] 부분에는 部落의 地名을 함께 기록하고 있으나, 建州衛 · 左衛 · 右衛에 대해서는 地名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抄記」는 동시기의 다른 어떤 기록보다도 당시 조선의 시각에서 본 압록강 방면 여진족 사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사료라는 점에서 중

---

無不洞知 脫有事變 少無防碍之處 今則體探永廢 故老已死 事知道路者 無一人 誠非細慮  
而追邀擊指路等事 亦無一人詳知者 爲邊將老[者] 一大欠事也 深入體探之事 邊將雖未得自  
擅 歸順胡人中 擇其開明者 詳問其由 則可知矣 但以一二胡問答 取信爲難 諸胡中多間厥由  
衆口一談 則亦可 兹以首胡等歸順 則僉使親問 略抄其大槩而已”

요한 의의를 가진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抄記」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당 지역 여진족 部落의 상황을 정리하고자 한다.

## 2) 압록강 중상류의 溫河衛

「抄記」의 여진족 部落들에 대한 정보는 일정한 순서로 기록되어 있다. 아래의 예는 溫大衛[溫河衛] 소속 童非雙可의 部落에 대한 서술이다.

- (1) 同衛屬: 部落이 소속된 衛. 溫大衛·左衛·建州衛·右衛·毛鱗衛로 구성.
- (2) 小甫里居: 部落이 위치한 地名. 溫大衛 부분에만 기록되어 있음.
- (3) 首胡童非雙可部落: 部落을 이끄는 首長.
- (4) 十五餘戶: 部落의 戶數.
- (5) 陸路則自上土北距二日程半, 水路則自滿浦二日程: 部落으로 가는 경로와 거리.
- (6) 右胡段, 連續歸順: 해당 部落의 首長 및 그 휘하 주민들의 歸順 여부.

「抄記」의 내용은 溫大衛[溫河衛]와 그 외의 左衛·建州衛·右衛·毛鱗衛[毛憐衛](=建州女眞)로 대별할 수 있다. 우선 「抄記」에 기록된 溫河衛 소속 부락들의 정보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溫河衛 소속 部落

지명	首長	戶數	路程	조선과의 관계
-	酋長 沈坪古	200여 호	滿浦에서 출발하여 2일째 에 中嶺 2개, 3일째에 大 嶺 2개를 넘으면 도착. 북쪽으로 4日程. <sup>85)</sup>	乙卯年間(1555)에 歸順. 지금은 年老하여 그 麾下가 연속해서 往來함.
梨坡	首胡 重[童]可多 <sup>86)</sup>	11호 <sup>87)</sup>	滿浦에서 作路하면 三大 嶺을 넘어 북쪽으로 1日 程. 水路는 半日程.	연속하여 歸順. 者皮船을 많이 만들어 자주 採蓼여 러 胡人們이 값을 받고 我國 梨古介近 處에 와서 採蓼할 때 조선인을 만나면 잡아갔음. <sup>88)</sup> 罪가 가볍지 않으나 알면서 도 다스리지 않으니 심히 분통함.
照牙坪	首胡 童順者致	12호	滿浦에서 水路로 梨坡을 지나 북쪽으로 1日程. 陸 路는 上土에서 북쪽으로	西海坪에 거주하던 胡人. 往年에 西海坪 을 경작한 것은 右胡의 소행으로, 體探 하고 禁耕했을 때 혹 교전하여 제압하

			1日程半.	기 어려웠음. 지난 甲申年(1584)부터 國威에 從順하여 전혀 경작하지 않음. 지금은 照牙坪에 移居해서 그 옛 터와 밭에 집을 짓고 경작함. 當時에는 歸順하지 않다가, 前年 6월 王豆以致宴享時 와서 참석함.
立巖	首胡 童老吾多 <sup>89)</sup>	9호	陸路는 上土에서 북쪽으로 2日程, 水路는 滿浦에서 滿浦에서 북쪽으로 1日程半.	지난 戊辰年(1568) 上土 中末守護 <sup>90)</sup> 에再度 作賊. 同年 5월 金秀文이 兵使였을 때 직접軍馬를 이끌고 3개월간 주둔하면서 諸將을 나눠 보내 西海坪을 擊伐, 焚蕩할 당시 右胡가 대항하여 교전함. 지금은 年老하여 行步하지 못하고 歸順하지도 않음.
西海坪 越邊 遲達	首胡 童沙乃	3호	陸路는 上土에서 북쪽으로 2日程, 水路는 滿浦에서 滿浦에서 북쪽으로 1日程半.	年老하여 歸順하지 못함. 그 휘하는 연속하여 歸順.
西海坪 越邊 上端	首胡 童林仇致	4호	陸路는 上土에서 북쪽으로 2日程, 水路는 滿浦에서 滿浦에서 북쪽으로 2日程.	歸順하지 않음. 그 휘하는 연속하여 歸順.
小甫里	首胡 童非雙可	15여 호	陸路는 上土에서 북쪽으로 2日程半, 水路는 滿浦에서 滿浦에서 2日程.	연속하여 歸順.
趙明干 越邊	首胡 童乃他	30여 호	陸路는 上土에서 북쪽으로 4日程, 水路는 滿浦에서 滿浦에서 3日程半.	연속하여 歸順.
坡山 越邊	首胡 童波應只乃	50여 호	陸路는 上土에서 북쪽으로 4日程半, 水路는 滿浦에서 滿浦에서 4日程.	연속하여 歸順.
雪雲	首胡 金倭豆 <sup>91)</sup>	150여 호	陸路는 上土에서 북쪽으로 6日程, 水路는 滿浦에서 5日程.	三水 · 甲山과 3일 남짓 日程으로 몰래兩邑 근처에서 賣買하였으나, 지금은 전년에 甲山 지경 雲龍堡 碣磧烟臺 烽卒을 잡아간 이후 발붙이지 못함. 今年 正月부터 그 휘하가 賣買 등의 일을 맡아서 (滿浦)鎮에 거짓으로 歸順하여 왕래함.

\* 「抄記」, 溫大衛, 49a-50b면의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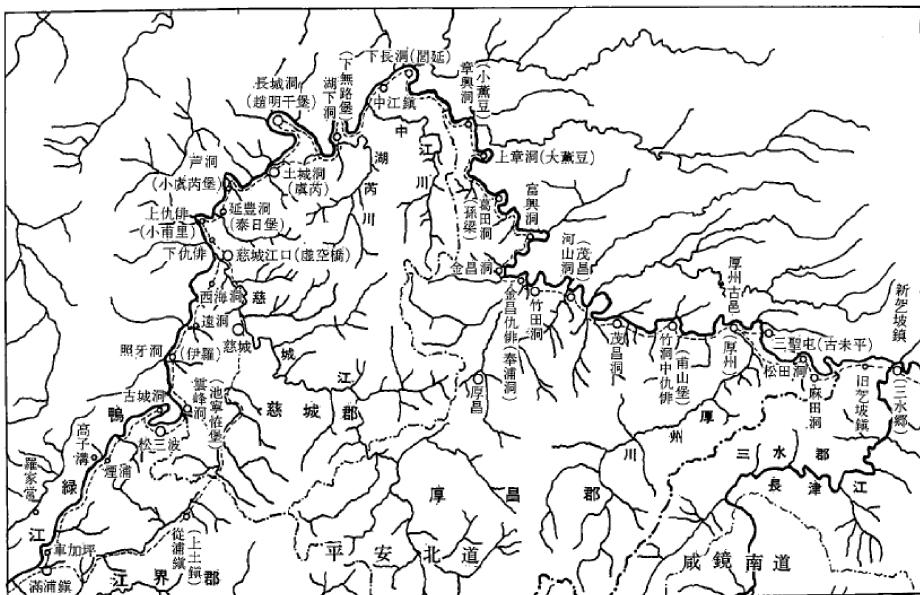
85) 원문은 “自滿浦第踰二中嶺 第三日踰二大嶺 至同部落 北距四日程”으로, 第一日과 第二日

〈표 1〉의 기재 순서를 보면 위치를 파악할 수 없는 酋長 沈坪古의 部落을 제외한 나머지 部落들은 滿浦鎮을 기준으로 압록강을 따라 가까운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림 1〉을 참고하면, 照牙坪·小甫里 部落은 압록강의 조선측 연안에 자리잡고 있었다.<sup>92)</sup>

이상 「抄記」에 기록된 溫河衛 部落들 이외에, 상류의 三水·惠山 인근에도 여진족 部落들이 더 있었음이 확인된다.<sup>93)</sup> 『關北誌』(1859)에 따르면 正統 연간(1436~1449)에 古未浦[古未坪] 部落에 100여 家가 들어와 살았고, 隆慶·萬曆 연간(1567년 이후) 惠山鎮 건너편의 乾川岐(15~16家)·藥水德(10여 家), 仁遮外堡 건너편의 主家洞(7~8家), 羅暖堡 건너편의 尹水洞(10여 家) 部落이 생겼으며, 茄乙坡知·厚州 건너편에도 모두 小部落이 있어 古未浦[古未坪]와 서로 통했다고 한다.<sup>94)</sup>

부분이 결락되어 있다.

- 86) 重은 童의 誤寫로 보인다.
- 87) 『建州紀程圖記』에 따르면 선조 28년(1595) 梨坡 部落에는 胡家 18座가 있었다고 한다.
- 88) 『江界誌』(奎10948: 李泰鎮·李相泰 編, 1990 『朝鮮時代 私撰邑誌』 54, 韓國人文科學院) 下卷, 「邑先生案」 224면에 따르면 採蓼人이 잡혀간 일로 隆慶 庚午年(1570) 9월, 辛未年(1571) 10월, 萬曆 癸酉年(1573) 10월에 府使·判官이 연이어 拿罷되고 있다. 다만 이것 이 梨坡 部落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 89) 「抄記」 말미(52b면)에는 己卯年에 사망한 豆巖 酋長 无羅赤의 이름을 들고 있는데, 豆巖 은 立巖의 誤字일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无羅赤와 童老吾多의 관계는 알 수 없다.
- 90) 中末守護란 여진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 山上에 설치한 守護廳의 하나로, 上抹·中抹·下抹의 호칭이 있었다고 한다. 『江界誌』下卷, 「古事」 101-102면.
- 91) 『建州紀程圖記』의 古未介[古未坪] 酋長 金歪豆 및 『宣祖實錄』 卷189, 선조 38년 7월 4일 (병자)에 등장하는 酋胡 金倭道와 동일인으로 보인다.
- 92) 溫河衛 소속 部落들의 지리적 위치는 박정민, 2018b 앞의 논문에서 자세한 근거를 들어 비정하고 있으므로 참고.
- 93) 다만 『建州紀程圖記』에 따르면 古未坪보다 동쪽의 部落들은 溫河衛가 아닌 毛憐衛로 분류되었다. 申忠一, 『建州紀程圖記』(淸芬室叢刊 第1) “溫火衛 西自梨坡部落 東至古未介部落云 毛憐衛 咸鏡北道越邊云”: “初五日 (중략) 又曰 毛憐衛胡人 屢犯貴國地方 欲設一鎮於惠山越邊 以遏冒境賊胡 如何” 毛憐衛는 15세기 초 李滿住를 따라 서쪽으로 이주한 집단과 두만강 유역에 남은 집단으로 나뉜다. 이에 대해서는 蔣秀松, 1984 「毛憐衛의變遷」 『社會科學輯刊』 1984-1, 100-102면 참고. 따라서 惠山鎮 부근의 毛憐衛와 후술하는 「抄記」의 毛憐衛는 명칭과 연원은 같으나 정치적 연결고리는 없다.
- 94) 고승희, 2005 「조선후기 함경도 內地鎮堡의 변화」 『韓國文化』 36, 343면; 尹定善, 『關北



〈그림 1〉 廢四郡·溫河衛 관계 지도  
(河內良弘, 앞의 책, 683면의 第31圖 閔延·茂昌出兵參考圖를 전재함)

「抄記」에 나온 10개 部落의 戶數를 살펴보면 200호 이상이 1곳, 150호 이상이 1곳, 30~50여 호가 2곳, 10여 호가 3곳, 그 이하가 3곳 있었다.<sup>95)</sup> 한편 『關北誌』에 나온 部落은 100家 이상의 古未坪 部落을 제외하면 10여 家가 3곳, 그 이하가 1곳, 戶數가 불분명한 小部落 2곳이었다. 같은 首長이 거느린 雪雲·古未坪 部落은 동일한 집단으로 추정되므로,<sup>96)</sup> 이를 감안하면 전자는 대략 500호, 후자는 대략 50호에 이른다. 결국 누르하치의 영향력이 미치기 이전 16개 部落 550

誌(국립중앙도서관 古2790-1-12) 卷9, 「甲山府誌」古蹟. 鄭允容, 『北路紀略』卷3, 「劍川以下諸部落」에는 乾川岐가 鋤川岐로 적혀 있고, 主家洞·尹水洞 및 契波知·厚州 진너편에 대한 언급은 빠져 있다. 이를 기록은 모두 누르하치의 압록강 유역 침입 이전 상황을 정리한 것이다.

95) 金秀文의 정벌 당시 西海坪에도 胡人 10여 家가 있었다고 한다. 『眉巖日記』2책, 戊辰年(1568) 5월 28일.

96) 박정민, 2018b 앞의 논문에서는 金倭豆가 통솔하던 古未坪 部落이 선조 21년(1588) 申砬에 의해 征討당하자 雪雲으로 이주했다가 누르하치의 압력을 받아 다시 古未坪으로 옮겼다고 추정하였다. 본고 역시 이에 따르고자 한다.

戶 이상이 압록강 중상류 유역에 거주하고 있었던 셈이다.

각 部落의 평균 戶數는 35호 정도로 『制勝方略』에 기재된 동시기 두만강 유역의 部落들과 비슷하지만, 전체 규모로 보면 『制勝方略』의 289개 部落 8,523戶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sup>97)</sup> 그러나 두만강 유역이 지리적 조건과 조선과의 관계 면에서 훨씬 유리함을 감안하면, 550戶 역시 적지 않은 수이다. 戶當 人數는 알 수 없지만, “三水에서 閩延·茂昌까지 와서 사는 野人們이 4~5천”이라고 한 평 가가 크게 과장은 아님을 알 수 있다.<sup>98)</sup>

「抄記」에 등장하는 部落들의 경우, 위치가 滿浦와 가까울수록 戶數가 적고, 멀어질수록 많아진다. 그중에서도 西海坪 부근 部落들의 户數가 가장 적은 편이다. 이는 입지조건이나 首長의 세력도 작용하겠지만, 西海坪에 대한 조선의 끈질긴 驅逐 노력으로 인해 주변의 部落들이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sup>99)</sup> 실제 照牙坪의 童順者致 部落은 西海坪으로부터 이주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首長들의 인적사항을 보면 가장 많은 戶數(200여 호)를 거느린 酋長 沈坪古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首胡로 지칭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사이에 지휘·통속 관계가 있는지는 드러나지 않는다. 뒤에서 살펴보겠으나 建州衛·左衛·右衛에 “酋長”이 각각 2명씩 있는 것으로 보아, 「抄記」의 저자는 酋長을 衛의 유일한 대표자라는 의미로 사용한 것 같지는 않다.<sup>100)</sup> 아울러 선조 29년 (1596) 溫河衛의 “都酋長”으로 등장하는 童姜求里와<sup>101)</sup> 「抄記」의 “酋長” 沈坪古의 관계 역시 알 수 없다.

관련하여 溫河衛 내부의 정치적 결속에 관해 살펴보면, <표 1>에서 西海坪 征討 당시 조선군에 대항한 주체는 照牙坪과 立巖 2개 部落뿐인 것으로 드러나며, 나머지 部落들은 별다른 저항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 즉 여러 部落이 조선의 침입에 대해 대규모로 협력하여 대응할 정도의 결집력을 갖고 있지 않았던 것이

97) 한성주, 2011 『조선전기 수직여진인 연구』, 景仁文化社, 197~198면.

98) 『中宗實錄』 卷102, 중종 39년 4월 16일(갑신).

99) 「抄記」 52b면 “西海坪田耕胡人 每年春秋 我軍潛入其處 或斬頭射殺 故右胡族類子孫等 日以報復爲事”

100) 동시기의 『制勝方略』은 대부분의 部落에 “酋長”이 있는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한성주, 2011 앞의 책, 318~325면의 <별표 4> 참고.

101) 申忠一, 『建州紀程圖記』 “溫火衛都酋長童姜求里之孫甫下下 奴酋妹夫也”

다. 이를 보면 溫河衛에 속한 部落(gašan)들은 선조 22년(1589) 누르하치의 침공 이전까지는 느슨한 연합체 이상의 협력구조를 구축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出自가 다양한 여진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이주하여 각각의 部落을 형성했던 溫河衛의 구조적 취약성에서 연유한 것으로 판단된다.<sup>102)</sup>

이들 部落 간에 친족집단이 존재하는지도 확인하기 어렵다. <표 1>에 등장하는 首長들은 沈姓 1명, 童姓 8명, 金姓 1명으로 童姓이 다수를 점하고 있기는 하지만, 漢字로 표시된 姓氏만으로 특정 부계친족집단의 존재를 상정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이다.

다만 일부 首長 사이에는 상호간 혈연관계 및 협조관계를 상정할 수 있다. 沈坪古 · 童順者致 · 童林仇致 · 金倭豆의 이름은 각각 여진어 fiyanggū(막내) · sunjaci(다섯째) · ningguci(여섯째) · eidu[人名]의 조선식 한자표기로 판단된다. 그런데 여진족 사이에서 형제간에 序數詞로 長幼를 표시하는 관습이 있었음을 감안하면,<sup>103)</sup> 童順者致 · 童林仇致는 近親이었을 확률이 높다. 실제로 童順者致의 照牙坪과 童林仇致의 上端(西海坪 越邊)은 반나절에서 하루의 가까운 거리이며, 童順者致가 원래 西海坪에 거주했음을 감안하면 둘은 압록강을 사이로 마주하고 있었던 셈이다. 西海坪 정벌 당시 童順者致가 조선군과 교전할 때 童林仇致가 호응한 흔적은 없으나, 본인 스스로는 年老하다는 이유로 滿浦鎮에 歸順하지 않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童順者致와 童林仇致, 그리고 立巖에 거주하면서 童順者致에 호응했던 童老吾多는 근처에 거주하며 행보를 같이한 “族類 · 子孫”이었을 가능성이 크다.<sup>104)</sup>

### 3) 압록강 이북의 建州女眞

다음으로 「抄記」에 기록된 左衛 · 建州衛 · 右衛 · 毛憐衛 소속 部落들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102) 河内良弘, 앞의 논문, 468-470면; 増井寛也, 1999 「明末のワルカ部女直とその集団構造について」『立命館文學』562, 107면의 주101.

103) 増井寛也, 1997 「明末建州女直のワンギャ部とワンギャ・ハラ」『東方學』93, 79-80면 및 주9.

104) 주99 참고.

〈표 2〉 左衛·建州衛·右衛·毛憐衛 소속 部落

소속	酋長	戶數	路程	조선과의 관계
左衛	酋長 童下下乃	100여 호	滿浦에서 西北間으로 첫날 中嶺을 넘고, 둘째 날 大嶺 을 넘고, 셋째 날 小川을 지나 도착. 3日半程.	年老하다고 칭하며 歸順하지 않음. 그 휘하는 연속하여 歸順.
	童坪古乃	50여 호	滿浦에서 西北間으로 첫날 大嶺을 넘고, 둘째 날 小嶺 을 넘고, 셋째 날 少川을 지나 도착. 3日程.	年老하다고 칭하며 歸順하지 않음. 그 휘하는 연속하여 歸順. <sup>105)</sup>
建州衛	酋長 李以難主 <sup>106)</sup>	150여 호	滿浦에서 서쪽으로 첫날 大嶺을 넘고, 둘째 날 中嶺 을 넘고, 셋째 날 小嶺을 넘음. 同 部落에는 前川(婆 豬江으로부터 山羊會堡 앞 에서 [압록강과] 합류)이 있어 사람이通行할 수 없 으므로 者皮船으로 건너야 함. 4日程.	三衛 中 巨酋로, 同衛의 王豆 以致와 因嫌하여 相戰한 것이 지금 5~6년. 滿浦鎮에 歸順하러 往來할 때 中路에서 攻擊할까 하는 근심 이 있어 절대 往來하지 않음. 지금은 王豆以致와 堆牛(?)하 고 相和하였으므로 근간 歸順 해서來現한다고 함.
	童億時應巨 [童朴可]	200여 호	滿浦에서 서쪽으로 첫날 大嶺을 넘고 둘째 날 小嶺 을 넘음. 同 部落 앞에 있 는 少川을 건너 도착. 2日 程半. 古山里에서는 2日程.	有名한 巨酋이나, 지난 癸未年 (1583)에 죽어 그 아들인 童朴 可가 대신 酋長이 되었다 함. 歸順하지 않음. 그 휘하는 연 속하여 歸順.
	酋長 王豆以致	300여 호	滿浦에서 서쪽으로 첫날은 大嶺을 넘고, 둘째 날은 大 嶺을 넘고, 셋째 날은 小川 을 건너 도착. 3日程半. 高 山里에서는 3日程.	三衛 中 巨酋. 去年 6月 江界人物 仲伊를 刷 還하는 데 功이 있어 賞賜하는 宴享에 와서 참석했을 때 그 容貌를 보니 勇力이 無雙하고 言語와 禮貌가 범상한 胡人이 아닌 듯함. 만약 失和하여 不順하게 되면 이끄는 軍馬가 가장 많아 진실 로 감당하기 어려운 賊임. 賞賜宴享 후에는 誠心으로 歸 順하지만 胡人은 속임수가 많 아 다 믿을 수가 없음.
右衛	酋長 童安之	200여 호	滿浦에서 서쪽으로 5日程. 山羊會로부터는 3日程.	간혹 歸順. 그 휘하는 연속하 여 歸順.
	酋長 童巨右	100여 호	滿浦에서 5日半程.	(없음)

毛獮衛	-	-	滿浦鎮과 극히 멀고, 上國과 경계를 접함	일찍이 15餘年 전에는 胡人이 간혹 歸順하여 塩醬을 買賣하였음. 지금은 長·寬 兩酋[長奠堡·寬奠堡]가 New設된 이후 그곳에서 買賣하여 (滿浦鎮으로는) 절대 歸順하지 않음.
-----	---	---	------------------------	---

\* 「抄記」左衛·建州衛·右衛·毛獮衛, 50b-52a면의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

먼저 주의할 것은 「抄記」의 左衛·右衛와 建州左衛·建州右衛의 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建州紀程圖記』는 建州衛를 조선의 昌城~高山里 건너편, 建州左衛를 也老江 유역, 建州右衛를 海西女眞과의 경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sup>107)</sup> 기존 연구에 의하면 建州三衛는 이미 16세기 전반에 유명무실해졌으며, 이후 建州衛는 王기야(Wanggiya)部, 建州左衛는 동고(Donggo)部, 建州右衛는 숙수후(Suksuhu)·후너허(Hunehe)·저천(Jecen) 3부로 각각 재편된 상태였다.<sup>108)</sup> 今西春秋의 고증에 따르면 王기야部는 侈家江 상류(滿浦·高山里 서북방), 동고部는 侈家江 하류(楚山·山羊會 서북방)에 있었고, 숙수후部는 蘇子河 일대, 후너허部는 渾河 일대, 저천部는 明 撫順과의 경계 지역에 있었다고 하는데,<sup>109)</sup> 이는 『建州紀程圖記』의 서술과도 대체로 부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抄記」는 山羊會에 가까운 곳, 즉 建州左衛의 후신인 동고部의 영역에 근접한 두 部落을 “右衛”에 분류해 놓고 있다. 이는 「抄記」의 左衛·右衛와 建州左衛·建州右衛가 다른 범주임을 시사한다.

아울러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建州衛와 右衛에는 酋長이 2명씩 있으며, 建州衛의 두 酋長은 최근까지 서로 대립하고 있었다. 따라서 「抄記」의 저자

105) 원문에는 順 결락.

106) 「抄記」 말미(52b면)에는 乙亥年(1575)에 사망한 建州衛 酋胡 李阿下의 존재를 언급하고 있는데, 李以難主와 일족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관계는 알 수 없다.

107) 申忠一, 『建州紀程圖記』 “建州衛 西自遼東界 東至蔓遮 以我國地方准計 則西自昌城 東至高山里 左衛 也老江上 右衛 海西地界云”

108) 増井寛也, 2010 「ギヨロ=ハラGioro hala再考: 特に外婚規制をてがかりに」, 『立命館文學』 619, 102면.

109) 今西春秋, 1967 「JUŠEN 國域考」 『東方學紀要』 2, 4-81면 및 第6圖(滿洲五部境域圖) 참고.

가 특정 部落들을 하나의 衛로 분류하였다고 해서, 그것이 실제 정치적 통일성이나 建州三衛와의 연계성을 반영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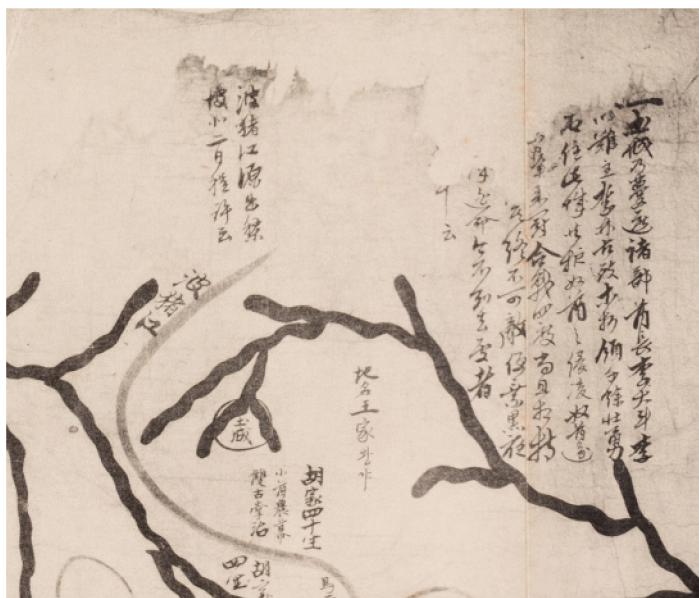
다음으로 각 部落의 戶數를 보면 대부분 100여 호 이상이고, 그 중에서도 王豆以致의 部落은 300여 호의 큰 규모이다. 하지만 〈표 1〉과 달리 50여 호 이상의 대규모 部落만 기재된 것으로 볼 때, 〈표 2〉의 部落들은 해당 衛의 部落 전체를 나열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申忠一은 滿浦鎮에서 후술할 李以難主의 土城 사이에 있던 大小 10여 곳의 部落을 『建州紀程圖記』에 기록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소규모 部落들은 「抄記」에 누락된 듯하다.

여기에는 두 가지 원인을 상정할 수 있다. 첫째는 정보의 상대적 부족이다. 압록강 중상류 지역의 部落들은 廢四郡 문제와 관련하여 조선의 주요 관심 대상이었고, 西海坪 정벌 등을 토대로 이들에 대한 정보도 자세히 축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시기 압록강 북쪽의 部落들에 대해서는 조선의 관심이나 직접 접촉을 통한 정보 유입이 적었고, 따라서 대규모 部落들의 정보만이 수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滿浦鎮과 가장 거리가 멀고, 滿浦鎮으로 歸順하지 않는 毛憐衛에 대한 정보가 극히 부실한 것을 통해 방증된다. 둘째로 「抄記」의 작성 과정에서 편의상 滿浦鎮에 왕래하는 대규모 세력들만을 기록하고, 나머지 소규모 部落들은 그들의 ‘麾下’로 취급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표 2〉의 대규모 “部落”은 실제로는 같은 首長의 지배하에 있는 여러 部落들을 합쳐서 표현한 것 이었을 가능성도 상정된다.

어떤 경우든, 압록강 북쪽의 여진족 집단들은 압록강 중상류보다 대규모의 세력을 구성하고 있었음은 분명하다. 이는 〈표 2〉에 등장하는 部落 중 대부분이 “酋長”이 이끄는 部落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을 통해서도 방증된다. 한편, 이들과 溫河衛 집단들 사이에 大小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 개별 部落이나 개별 세력 단위로 분열되어 있었음도 간취된다.

〈표 1〉의 首長들도 마찬가지지만, 〈표 2〉에 나타난 建州女眞의 首長들은 대부분 다른 사료에 나타나지 않아 그 성격을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抄記」에 “三衛 中 巨酋”로 특별된 建州衛의 酋長 李以難主는 『宣祖實錄』에 누르하치에게 굴복한 “建州衛 酋長 李以難”으로 등장하며, 『建州紀程圖記』에도 蔓遮 諸部의 酋

長으로 기록되어 있다.<sup>110)</sup> 申忠一은 누르하치의 근거지로 가는 도중에 위치한 土城을 “王家(왕가)”라는 지명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李大斗·李以難主·李林古致 등이 “千餘 壯勇”을 이끌고 4차례나 누르하치에 맞서 싸우다가 패한 곳이라고 상세한 설명을 붙여 놓았다(그림 2). 増井寬也의 연구에 따르면, 李以難主는 당시 왕기야部 首長 다이두 머르건(Daidu Mergen, 李大斗)의叔父 일라친 바얀(Iiacin Bayan)으로, 李滿住 아래 建州衛 首長의 嫡系였다.<sup>111)</sup> 당시 建州女眞의 유력자 중 한 사람이었던 것이다.



〈그림 2〉 『建州紀程圖記』(淸芬室叢刊 第1,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영인본)의 李以難主와 “王家(왕가)” 土城

「抄記」에서 李以難主와 함께 “三衛 中 巨酋”로 지목한 首長은 王豆以致(Duici: 넷째)이다. 「抄記」의 저자는 그가 宴享에 참석했을 때의 모습을 보고 방심할 수 없는 인물이며, 그가 이끄는 軍馬가 가장 많아 싸우게 되면 감당하기 어렵다고

110) 國田一龜, 1953 『明代建州女直史研究(續篇)』, 東京: 東洋文庫, 393-394면.

111) 増井寬也, 1997 앞의 논문, 72-84면.

평가하였다. 실제로 그는 왕기야部 首長의 婿統인 李以難主의 두 배인 300여 戶를 거느리고 있었다. 또한 그가 宴享에 참석했을 때 西海坪 문제로 오랫동안 조선과 대립했던 照牙坪 部落의 首長 童順者致도 와서 참석하였음을 보면, 王豆以致의 영향력은 압록강 중상류 유역에까지 미쳤던 것으로 추측된다. 사료가 부족하여 그의 실체를 밝히기는 어려우나, 建州女眞의 주요 유력자 중 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인다.<sup>112)</sup>

지금까지 「抄記」에 기재된 내용을 중심으로 압록강 방면 여진족 집단들의 상황을 정리하였다. 관찬 연대기에 西海坪 정벌 이외의 기록이 거의 없는 데 반해, 「抄記」에는 압록강 방면에 거주하던 다수의 여진족 部落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었다. 이는 조선이 殘四郡 지역에 대해 군사적 강경책을 취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보 수집이 가능할 정도로 여진족들과의 일상적 접촉을 유지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조선이 압록강 방면 여진족 집단들과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무엇을 추구하고 있었는가를 조망할 필요가 있다.

#### 4. 16세기 중후반 압록강 방면 여진족-조선 관계의 실상

##### 1) 여진족 部落의 “歸順”: 宴享과 開市

「抄記」는 조선에 대한 여진족 집단들의 관계를 “歸順”으로 표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표 1〉의 部落들은 首長이 연속하여 歸順하는 4개 部落, 首長은 歸順하지 않지만 그 휘하가 연속하여 歸順·往來·賣買하는 4개 部落, 歸順하지 않다가 前年 6월 宴享에 와서 참석한 照牙坪 部落의 首長 童順者致, 首長과 휘하가 歸順하지 않고 있는 立巖 部落으로 나뉜다. 이상의 용례를 통해 보면, 「抄記」의 저자는 歸順을 “首長이나 그 휘하가 滿浦鎮에 와서 宴享·賣買에 참여한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12) 더불어 유명한 巨酋로 파악된 童億時應巨(Eksingge)는 癸未年(1583)에 사망했기 때문에 인지 정보가 빈약하다.

「抄記」는 滿浦鎮에서 진행된 宴享과 賣買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여주지 않으나, 다른 사료들을 통해 그 실상을 추측할 수 있다. 19세기의 기록이지만, 『江界誌』는 滿浦鎮에서의 宴享·開市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女眞의 遺種이 白山의 西北에 이르렀는데, 世稱 老城 혹은 虜城이라 하였고, 그 酋長을 虜 建州夷主라 하였다. 그 땅에 穀粟이 나지 않아 우리의 慈城 등 四郡을 침입하여 벼슬내기 어려워서 백성을 內地로 옮겼더니, 그 무리가 우리 땅 瘦四郡 지경에 흘어져 살면서 농사를 지었다. 때문에 我朝에서 해마다 병사를 동원해 곡식을 배고 쫓아냈다. 그 후 諸部의 胡人이 나와 民財를 약탈하는 근심이 없는 해가 없었다. 인하여 夷主와 通款하여 鴨綠江을 경계로 하고, 滿浦鎮城 서쪽에 따로 胡館을 지어 매년 봄가을 그 무리를 불러서 宴享을 베풀었으며, 虜差가 왕래할 때는 衣服·綵繪을 주어 영구히 和好하였다.<sup>113)</sup>

위의 사료는 조선이 “夷主”와 鴨綠江을 경계로 하는 일종의 約條를 맺었다고 서술하는 등 사실적으로 부정확한 내용도 있지만, 瘦四郡 伐穀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16세기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이 압록강 방면 여진족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 滿浦鎮에서 매년 봄가을 宴享·開市를 열어 여진족들을 羈縻하였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여타 기록에서도 이를 방증하는 언급을 찾을 수 있다. 『關北誌』·『北路紀略』에 따르면, 임진왜란 이전 茄乙波知鎮과 惠山鎮에서 주변 여진족部落들에 대해 봄가을로 宴饗과 開市를 열었다고 한다.<sup>114)</sup> 아울러 『稗官雜記』는 명종대에 西邊

113) 『江界誌』下卷, 「古事」 100-101면 “女眞遺種 到于白山之西北 世稱老城 或云虜城 其酋或稱達[建]州夷主 地不產黍粟 侵我慈城等四郡 不能支保 故移民內地 而其衆散居我地瘦四郡境 耕田種粟 故我朝年年領兵伐粟而逐之 其後諸部胡人出來 掠奪民財之患 無歲無之 仍與夷主通款 以鴨綠江爲界 滿浦鎮城西 別設胡館 每年春秋 招其衆而宴享 虜差往來時以衣服綵繪 贈之 以爲永久和好” 이 기록은 “老城(혹은 虜城)” 및 萬曆 戊午年(1618)의 濬陽 획득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누르하치 등장 이전 상황과 누르하치에 대한 전승이 혼재된 것으로 보인다.

114) 尹定善, 『關北誌』卷9, 「甲山府誌」古蹟 “三水(茄+乙)波知 及本府惠山鎮 設管開市 春秋設饗厚待”: 鄭允容, 『北路紀略』卷3, 「劍川以下諸部落」 “甲山惠山鎮 皆春秋設饗開市” 사료 원문의 서술 순서로 보아 이는 萬曆 庚寅年(1590) 이전의 일로 추측된다. 「抄記」 역시 三水·甲山에 開市가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표 1>의 雪雲 항목 참고. 반면 『宣祖實錄』은 南兵使 崔湖가 甲午年(1594)부터 茄乙波知堡에 開市를 열었다고 하며, 선

의 夷人们이 잡혀간 조선 백성들을 滿浦 등지에 빈번히 刷還하여, 이들에게 宴席을 열어주고 綿布를 상으로 주었음을 기록하고 있다.<sup>115)</sup>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抄記」 역시 “去年 6月” 조선인 刷還에 功을 세운 王豆以致에게 宴享을 베풀었음을 기재하였다. 16세기 중후반 滿浦鎮 · 茄乙波知堡 · 惠山鎮에서는 매년 봄가을에 宴享과 開市를 열었으며, 被擄人을 刷還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宴享을 개최했던 것으로 보인다.

「抄記」에 기록된 대부분의 部落들은 首長 또는 그 휘하가 滿浦鎮에 “歸順”하고 있다. 특히 압록강 중상류 지역은 首長이 직접 “歸順”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이 滿浦鎮에 적극적으로 “歸順”한 것은 조선과의 관계 유지를 통해 안전을 도모하려는 의도도 있겠으나, 경제적 이득이 주된 목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宴享에 참석 함으로써 綿布 등 賦與物을 획득하고, 開市를 통해 현지에서 구하기 어려운 鹽醬 및 모자란 식량을 보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sup>116)</sup> 심지어 〈표 1〉의 雪雲部落은 원래 三水 · 甲山에서 賣買하였으나, 雲龍堡 침입 사건 이후 밭붙이지 못하게 되자 그 휘하로 하여금 滿浦鎮에 彙順한다고 칭탁하며 賣買하도록 할 정도였다.

開市에서 거래된 품목은 무엇보다도 鹽醬을 비롯한 생활필수품이었을 것이며, 16세기 전반 활성화된 貂皮 교역이 이때까지 지속되어 주된 교역품으로 기능했을 가능성이 높다.<sup>117)</sup> 貂皮 이외에도 여진의 熊皮 · 鹿皮, 조선의 소가 교역되었

---

조 33년(1600) 李鎰도 “頃年”에 惠山과 茄乙波知에 納款을 허락하였다고 하였으므로, 茄乙波知堡 · 惠山鎮의 開市는 임진왜란 이후 시작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박정민, 2016 앞의 논문, 98-99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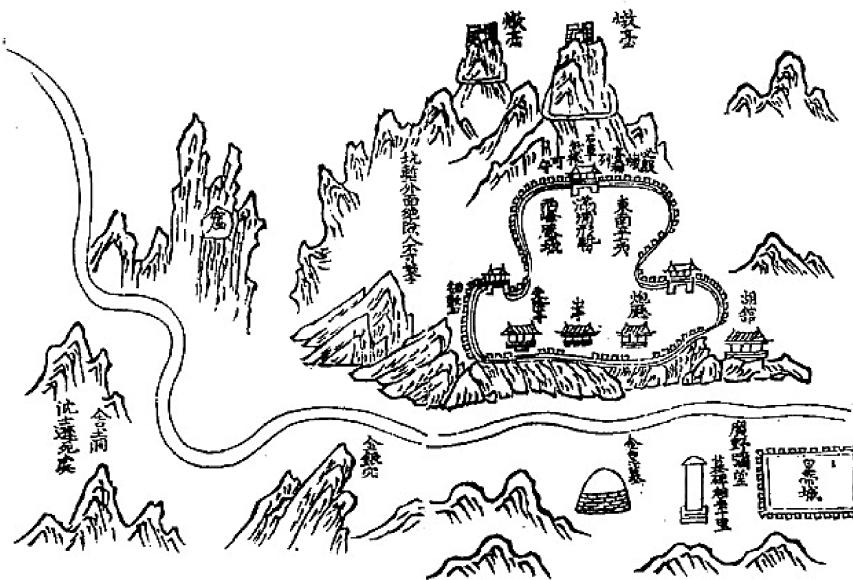
115) 魚叔權, 『稗官雜記』 卷5[金鑑, 『寒臯觀外史』(韓國精神文化研究院 영인본 1권) 卷3, 111-112면], “兩界人民被西北夷搶去者 不可勝數 明廟朝 西邊夷人 頻刷還于滿浦等處 宴席以慰之 綿布以賞之” 해당 기사는 『大東野乘』 수록 『稗官雜記』에는 누락되어 있다.

116) 〈표 2〉의 毛獮衛 항목 참고. 河內良弘, 앞의 책, 618-622면에는 滿浦鎮 교역이 여진인들의 鹽醬에 대한 욕구에서 출발하여, 점차 교역의 이득을 목표로 하게 되었음이 지적되어 있다.

117) 滿浦鎮 貂皮 무역에 대해서는 위의 책, 622-625면 및 김순남, 2011 「16세기 조선과 野人 사이의 도파 교역의 전개」 『韓國史研究』 152, 88-97면 참고. 奇大升이 庚申年(1560) 이 후 쓴 다음 글은 명종대까지도 滿浦 교역이 지속되었음을 시사한다. 奇大升, 『高峯集』 卷3, 「故正憲大夫漢城府判尹兼五衛都摠府都摠官知訓鍊院事河源君贈謚恭武張公墓誌銘」(張彥良) “辛卯(1531) 拜滿浦僉使 滿浦據西方上游 胡人日來交市 易以生鬱”

을 것으로 추측된다.<sup>118)</sup> 이는 압록강 방면 여진족들의 생존과 농경에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한편 압록강 이북의 建州女眞 部落들을 보면, 다수의 首長들이 歸順하지 않거나 간혹 歸順할 뿐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이들이 대규모 집단을 이끌고 있는 大首長들로서, 굳이 직접 滿浦鎮까지 가서 宴享과 開市에 참석할 동기가 없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그들 휘하의 여진인들은 滿浦鎮을 통해 鹽醬 등의 물질적 필요를 충족했으리라 생각되며, 이는 이들이 지속적으로 歸順하고 있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sup>119)</sup>



〈그림 3〉 崔旼, 『訥齋集』別集 卷1, 關西錄「沿江列堡」滿浦鎮圖

118) 申忠一, 『建州紀程圖記』“初五日 臣等出來時 汝乙古言於馬臣曰 欲將熊皮鹿皮 賣於滿浦 買牛耕田”河內良弘, 앞의 책, 636면은汝乙古를 建州女眞의 農民으로 보고 있으나, 그는 梨坡 部落의 酋長이었다. 申忠一, 『建州紀程圖記』“自滿浦距梨坡三十里 部落十八座 酋長董汝乙古云”

119) 『中宗實錄』卷58, 중종 22년 3월 27일(갑진) 기사에 따르면 建州衛 여진인이 北京에서 만난 조선 사신에게 자신들은 전적으로 조선에 힘입어 살아가고 있다고 하였다.

“歸順”해 오는 여진족들을 접대하기 위해, 滿浦鎮에서는 이르면 문종대부터 성밖에 胡館을 마련하는 등 다방면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그림 3).<sup>120)</sup> 중종대에도 歸順하는 여진인이 滿浦鎮에 來現하면 客館에서 접대하고 供饋하며 필요한 물건을 지급한다고 하였으므로, 胡館은 16세기 내내 활발히 이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sup>121)</sup> 또한 『光海君日記』에는 滿浦에 歸順하는 胡人은 1년에 800명을 供饋한다는 “定規”가 있다는 기록이 있는데,<sup>122)</sup> 이 역시 멀리는 중종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규례일 가능성이 크다.<sup>123)</sup> 아울러 중종 초 平安兵使 崔漢洪이 滿浦僉使로 하여금 歸順하는 野人の 이름을 帳簿에 기록하도록 하고 소속, 이름, 날짜를 적은 牌字를 만들어주어 이후 牌가 없는 사람은 나오지 못하도록 하였다고 하는 기사가 있어, 현지 차원에서 歸順하는 여진인들을 관리하는 체계가 있었음을 시사한다.<sup>124)</sup>

특기할 것은 압록강 이북의 建州女眞에 대해 조선과 명의 영향력이 길항하는 면모가 확인된다는 사실이다. <표 2>에서 확인되듯이 毛撣衛는 滿浦鎮과 매우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혹 歸順하여 鹽醬을 賣買하였으나, 長奠堡·寬奠堡의 신설 이후에는 발길을 끊었다. 그 이유는 寬奠互市의 개설에 있었다. 萬曆 4년 (1576), 명은 寬奠 6堡로 인해 사냥터를 침범당한 建州女眞의 불만을 달래기 위

120) 『文宗實錄』卷9, 문종 원년 8월 9일(갑술). <그림 3>에는 鎮城 오른쪽에 胡館으로만 표시되어 있으나, 『建州紀程圖記』는 胡館의 정식 이름이 懷遠館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申忠一, 『建州紀程圖記』“二十二日朝 前僉使柳濂 出在懷遠館 招兩胡 饋以酒食 各給米布”

121) 『中宗實錄』卷91, 중종 34년 6월 5일(신축).

122) 『光海君日記』[중초본] 卷63, 광해군 5년 2월 19일(정미). 해당 기사의 문면에 따르면, 이는 辛丑·壬寅年(1601~1602)보다 이전에 성립된 규정으로 보인다.

123) 조선은 임진왜란 이후에도 국력을 회복한 후 규정에 따라 六鎮 藩胡의 上京을 허락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박정민, 앞의 책, 201-222면. 즉 임진왜란 이전 여진인들을 대했던 규례는 이후에도 규정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를 감안하면, 壬寅年 (1601) 이전의 “定規”는 임진왜란 이전부터의 규정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중종 18년(1523) 滿浦僉使 李誠彥은 滿浦에서 여진인들에게 공급할 米麪 1년치를 계산하여 江界府에서 미리 이송하자고 제안한 바 있는데[『中宗實錄』卷49, 중종 18년 12월 11일 (정미)], 이것이 滿浦鎮에서 供饋할 人數를 정한 시초일 가능성이다. 김순남, 2010b 앞의 논문, 72면 참고.

124) 『中宗實錄』卷21, 중종 9년 11월 21일(기묘). 滿浦鎮을 중심으로 한 여진과의 관계는 김순남, 2010b 앞의 논문, 70-78면 참고.

하여 互市를 열고 米·布·豬·鹽 등의 교역을 허가하였다.<sup>125)</sup> 이로 인해 부근의 여진인들이 滿浦鎮까지 갈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抄記」에 따르면 滿浦鎮에 彙順하는 여진족의 범위는 지리적으로 滿浦鎮에서 5~6日程 내로 한정된다. 대략 이 정도가 당시 조선이 압록강 방면 여진 사회 내부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범위로 추정된다.

馬市 참가 인원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조선과 명의 길항관계를 엿볼 수 있다. 萬曆 6년(1578) 명의 撫順馬市에 참여한 인원을 기록한 檔案에는 누르하치의 조부 교창가(叫場, Giocangga)를 포함한 建州女眞 首長들의 이름이 등장하지만, 漢字 轉寫 방식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抄記」에 등장하는 인명은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는다.<sup>126)</sup> 물론 10년의 시간적 간격도 있고, 모든 首長이 직접 馬市에 참석했다는 보장도 없으나, 명의 馬市·互市에 참여하는 여진인들과 조선 측의 宴享·開市에 참여하는 여진인들은 중복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 시기 조선과 명은 15세기처럼 적극적으로 여진 招撫를 위해 경쟁하지 않았지만, 互市와 開市를 통한 영향권의 분점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16세기 중후반, 조선은 滿浦鎮을 비롯한 邊鎮을 통해 압록강 방면 여진족들의 “歸順”을 받으며 일상적으로 접촉하고 있었다. 宴享·互市를 통해 유지된 이러한 접촉은 관찰사료에 거의 나타나지 않았던 바로서, 征討·驅逐과 함께 압록강 방면 조선-여진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 2) 征討와 羈縻: ‘對外政策’에서 ‘邊境政策’으로

이상을 바탕으로, 16세기 중후반 조선이 압록강 방면의 여진족 집단들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지향하고 있었으며, 그 지향이 이전 시기와 어떤 점에서 같고 다

125) 江嶋壽雄, 1999 『明代清初の女直史研究』, 福岡: 中國書店, 384-387면 및 399-404면.

126) 『中國明朝檔案總匯』96(中國第一歷史檔案館·遼寧省檔案館 編, 2001 桂林: 廣西師範大學出版社), 105 「關於報送抽收夷稅及撫賞夷人銀兩清冊的呈文」, 509-550면. 이 檔案에 관한 설명은 荷見守義, 2014 『明代遼東と朝鮮』, 東京: 汲古書院, 162-163면 참고. 아울러 萬曆 13~17년(1585~1589) 遼東巡撫로 재임한 顧養謙의 「全鎮圖說」[顧養謙, 『沖庵顧先生撫遼奏議』(續修四庫全書 478) 卷6, 「全鎮圖說」虜衆, 東虜女直部, 269-270면]에서도 누르하치는 등장하나, 「抄記」의 인명들은 확인할 수 없다.

른지 조망하고자 한다.

조선은 15세기 말까지 압록강 방면의 여진족에 대해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을 폈다. 세종대의 婆猪江 정벌과 세조대의 建州衛 정벌은 대외적으로 여진족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대내적으로 왕권을 강화·과시하고자 한 것이었다.<sup>127)</sup> 성종대에도 명의 建州衛 정벌에 조응하여 출병했으며, 연산군대에는 建州三衛에 童淸禮를 파견하는 한편 정벌을 고려하기도 하였다.<sup>128)</sup> 建州三衛와의 관계 악화와 명의 간섭 등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되지는 않았지만, 建州三衛에 대해受職과 上京을 허락하기도 하였다.<sup>129)</sup>

그러나 중종대 이후 압록강 방면에 대한 조선의 정책지향은 큰 변화를 겪었다. 연산군대 2만 명의 병력을 예정한 西征이 취소된 뒤,<sup>130)</sup> 대규모 여진 征伐은 다시 시도되지 않았다.<sup>131)</sup> 이는 建州三衛가 중종대 이후 실질적으로 해체됨으로써 압록강 방면에서의 외부적 압력이 크게 감소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3장에

127) 이규철, 2013 『조선초기의 對外征伐과 對明意識』, 가톨릭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55-96면 및 122-146면.

128) 위의 논문, 147-164면; 河內良弘, 앞의 책, 657-669면; 김순남, 2009 「조선 燕山君代 여진의 동향과 대책」『韓國史研究』144; 한성주, 2012 「조선 연산군대 童淸禮의 建州三衛 파견에 대하여」『만주연구』14.

129) 河內良弘, 앞의 책, 374-394면; 한성주, 2011 앞의 책, 130-143면; 박정민, 앞의 책, 70-71면, 103-107면, 121-122면, 143-148면, 160면, 166면, 180-181면.

130) 河內良弘, 앞의 책, 666-669면; 姜性文, 1989 「朝鮮시대 女眞征伐에 관한 연구」『軍史』18, 58-60면.

131) 이에 대해 姜性文과 이규철은 성종 22년(1491)의 北征 실패가 결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하였다. 姜性文, 앞의 논문, 58면; 이규철, 2013 앞의 논문, 180-184면. 다만 연산군대 西征 시도가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성종대 北征 실패가 결정적 요인이었는지는 재고가 필요하다. 권영란, 2017 「조선 전기 대여진정책과 여진 귀화인 童淸禮」『역사와 실학』62, 104-105면은 중종 후반기 廢四郡 지역 여진족 재구축을 논의하면서 이들과 연결된 建州女眞 征伐도 함께 논의되었지만 실행에 옮겨지지는 않았다고 보았다. 하지만 이는 명의 山東巡按御史 胡汝輔가 建州衛를 치기 위해 조선에 출병을 요청하자고 건의하는 편지를 입수함에 따라 대응 차원에서 고려된 것이지, 독자적으로 建州女眞을 공격하고자 한 것은 아니었다. 이에 대해서는 계승범, 2009 『조선시대 해외파병과 한중관계: 조선 지배계층의 중국 인식』, 푸른역사, 119-123면 및 송옹섭, 2015 「중종대 사대의식과 유교화의 심화: 『중종의 시대』의 사대와 유교화에 대한 이해」『朝鮮時代史學報』74, 378-380면을 참고.

서 살펴본 바와 같이, 滿浦鎮과 관계를 맺고 있는 여진족 집단들은 크기의 차이를 있어도 대부분 정치적으로 분열되어 있었다. 따라서 조선이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 지역에 관여해야 할 필요성도 줄어들었다. 실제로 중종대부터 建州女眞과의 교섭은 급감하였으며,<sup>132)</sup> 군사행동의 초점도 建州女眞이 아니라 압록강 연변에 거주하는 溫河衛 집단들로 바뀌었다.<sup>133)</sup> 압록강 방면에 대한 정책적 지향이 적극적 영향력 확대에서 소극적 현상유지로 변경된 것이다.

그러나 현상유지 역시 쉬운 일이 아니었다. 여진족들의 간헐적인 침입은 이 시기에도 근절하기 어려운 문제로 남아있었다. 특히 廢四郡 문제는 중종대 이후 조선 조정의 골칫거리였다. 2장에서 본 바와 같이 선조대에 접어들어 조선은 廢四郡 문제 해결을 위해 꾸준히 군사적 역량을 투입하였다. 「抄記」에는 조선이 西海坪에 대한 대대적 군사행동 이후에도 매년 春秋에 군사를 잠입시켜 여진족들의 목을 베거나 사살하였고, 그들도 보복을 일삼아 충돌이 계속 이어졌음을 기록하고 있다. 그 결과 “西海坪의 胡類가 敗亡하여 蕭索”해졌으며, 유일하게 남은 餘種인 童順者致의 부락도 선조 17년(1584)에 “國威에 從順”하여 결국 이 주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sup>134)</sup> 그러나 그들은 바로 남쪽, 滿浦鎮 및 上土鎮과 더 가까운 照牙坪으로 이주하였을 뿐이다.<sup>135)</sup> 조선은 西海坪·古未坪 등 의 개별 부락을 압도하여 쫓아낼 수는 있었지만, 그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결과적으로 滿浦·上土鎮 동쪽, 茄乙波知堡 서쪽 지역은 실질적으로 여진족 거주지로 남아 있었다.<sup>136)</sup>

132) 河内良弘, 앞의 책, 708~709면은 중종~명종대 조선과 建州女眞의 교섭에서 새로운 전개는 보이지 않으며, 이는 建州女眞 내부의 변동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여기에는 조선도 적극적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133) 김순남은 이를 “조선 초기 야인 정책은 정별이 아닌 ‘구축’의 과정을 거쳐 변화”되었다고 평하였다. 김순남, 2010a 앞의 논문, 85면.

134) 建州衛 酈胡 李阿下의 죽음(1575), 豆巖 酈長 无羅赤의 죽음(1579)도 西海坪 여진인들의 쇠락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 「抄記」 52b면.

135) 〈표 1〉의 照牙坪 항목 참고. 照牙坪의 옛터는 명종 5년(1550) 方好義의 4屯 철거 당시 버려졌다가 이때 재접거된 것으로 보인다.

136) 金誠一은 선조 12년(1579) 咸鏡道 巡撫御史로 방문했을 때 茄乙波知堡를 “虜境中”에 있다고 표현하였다. 金誠一, 『鶴峯全集』 鶴峯逸稿 卷3, 「北征日錄」 己卯年 10월 17일(기축).

이런 상황에서, 조선에서는 宴享과 開市를 활용하여 압록강 유역의 여진인들을 회유함과 동시에 이를 미끼로 그들을 통제하려고 하였다. 『建州紀程圖記』에 따르면 중종 23년(1528) 滿浦僉使 沈思遜이 살해당한 이후, 조선은 梨坡의 여진 인들이 가까운 車蹤嶺 대신 서쪽의 巨柴項古介를 통해 滿浦鎮으로 歸順하도록 하였다.<sup>137)</sup> 〈표 1〉에서도 雪雲 部落이 雲龍堡에 침입하자 三水·甲山 방면으로의 왕래가 불가능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시도는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표 1〉에 등장하는 溫河衛 10개 部落 중, 조선과 직접 교전하였던 1~2개 部落을 제외한 나머지는 首長 또는 그 휘하가 여전히 滿浦鎮에 歸順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滿浦鎮에서의 宴享·開市가 여진족들의 경제생활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이상, 西海坪 문제로 일부 部落이 조선군과 충돌했다고 해서 溫河衛 전체가 보조를 맞추는 일은 없었던 것이다.

한편, 「抄記」에서 여진족의 滿浦鎮 왕래를 “歸順”이라고 표현한 것도 주목된다. 15세기 이래 조선에서는 여진족의 來朝·來現을 여진인들의 자발적 “歸順”으로 포장해 왔다. 주지하듯이 “歸順”이란 “따라와서 쫓음. 反逆의 마음을 고쳐 복종함. 歸命. 歸復”의 의미를 갖는 말이다.<sup>138)</sup> 즉 “歸順”이라는 표현은 조선의 여진족 집단들에 대한 우월성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 기록은 없으나, 滿浦鎮 등의 邊鎮에서 이루어진 宴享과 賞賜에서도 조선의 우월성이 의례를 통해 표현되었을 것으로 보인다.<sup>139)</sup>

137) 申忠一, 『建州紀程圖記』 “自沈思遜被害後 胡人之自梨坡往來此路者 一切禁斷” “梨坡胡人歸順時 此路往來”

138) 諸橋轍次, 1985 『大漢和辭典(修訂版)』 卷6, 東京: 大修館書店, 727면, 「歸順」. 『朝鮮王朝實錄』에서 歸順은 넓은 의미로 조선에 복속한다는 뜻과 좁은 의미로 조선에 來朝·來現 한다는 뜻으로 모두 사용되었으며, 滿浦鎮에 왕래하는 여진족 대상으로도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中宗實錄』 卷15, 중종 7년 1월 15일(신유).

139) 『經國大典』에 따르면 堂上守令이 野人을 접견할 때는 상석인 북쪽에 앉고, 野人은 서쪽에 앉게 되어 있다. 滿浦僉使는 당상관으로 임명되는 것이 관례였으므로(김순남, 2010b 앞의 논문, 61-64면) 滿浦鎮 宴享의 座次에서는 상하관계가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단 惠山僉使(종3품) 및 茄乙波知權管(종9품)의 경우에는 主客 관계로서 東西로 座次를 설정했을 가능성도 있다. 野人 접견시 座次規定에 대해서는 한성주, 2011 앞의 책, 3장을 참고.

물론 여진족들에게 “歸順”은 어디까지나 조선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경제적 욕구를 충족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았으며, 그들이 誠心으로 조선에 복속한 것은 아니었다. 〈표 1〉의 梨坡 部落은 여러 차례 조선인들을 잡아가면서도 滿浦鎮에 꾸준히 归順하였고, 雪雲 部落은 雲寵堡 침입 이후 교역을 위해 滿浦鎮으로의 归順을 칭탁하여 왕래하였다. 조선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표 2〉에서 「抄記」의 저자는 “誠心으로 归順”하는 王豆以致에 대해 “胡人은 속임수가 많아 다 믿을 수가 없다”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실상과 상관없이 이들을 조선의 邊鎮에 “歸順”하고 “國威에 從順”해야 하며, 실제로 “歸順”하고 있는 존재로 이해하는 것 자체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현실적으로는 廢四郡에 무단침입해 거주하는 등 문제를 일으키는 존재들일지라도, 이들을 조선에 “歸順”하는 존재로 분식함으로써 의제적으로 조선의 지배질서 하에 있는 것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140)</sup>

그렇다고 해서 두만강 방면 六鎮 주변에 거주하던 여진족에 대해서처럼,<sup>141)</sup> 압록강 방면의 여진족을 藩籬·藩胡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포용하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sup>142)</sup> 조선 조정은 두만강 안팎에 사는 여진인들을 일찍부터 조선에 복속해 온 이들로 간주하였다. 반면 압록강 이북의 建州女眞은 조선의 잠재적 적성세력이었고, 압록강 중상류 지역의 溫河衛는 廢四郡 지역에 불법으로 들어와 거주한 침입자들이었던 것이다.<sup>143)</sup> 특히 六鎮이 엄존하는 두만강 하류와 달리

140) 정다함, 2008 「朝鮮初期 野人과 對馬島에 대한 藩籬·藩屏 認識의 형성과 散差官의 파견」 『東方學志』 141, 231-236면은 조선이 修辭, 儀禮를 통해 대마도나 野人們에 대해 우월한 위치를 설정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조선이 여진족과의 관계에서 ‘조선 중심의 외교 질서’를 지향했음을 보여주는 최근 연구로는 한성주, 2011 앞의 책 및 박정민, 앞의 책 참고.

141) 한성주, 2011 앞의 책, 6장; 한성주, 2018 『조선시대 藩胡 연구』, 경인문화사.

142) 세종대에 일시적으로 李滿住를 조선의 藩籬로 삼으려 한 시도가 있었으나, 建州衛와의 마찰로 곧 폐기되었다. 한성주, 2011 앞의 책, 183-184면. 16세기 이후 조선에서 압록강 방면 여진족을 藩籬·藩胡로 칭한 사례는 管見에 한해 17세기 초의 다음 사료가 유일하다. 崔覘, 『訥齋集』別集 卷1, 關西錄「沿江列堡」滿浦鎮 “今當依北道會寧之制 主鎮僉使以嘉善官爲之 則本府不得壓倒 永無相爭之患 而一以彈壓列堡 一以威肅藩胡” 그러나 같은 글에서 崔覘은 藩籬, 屏藩을 邊鎮 및 邊將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했을 뿐, 여진족을 조선의 올타리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

군사적 영향력을 거의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압록강 중상류 지역에 거주하는 여진족들을 藩籬·藩胡로 인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瘦四郡에 대한 영유권을 방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sup>144)</sup> 아울러 建州女眞에 대한 명의 관심이 크게 줄어든 이후라고 하더라도 이들을 조선의 藩籬·藩胡로 간주하는 것은 외교적으로 적절치 않았을 것이다.<sup>145)</sup> 무엇보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16세기 중후반 조선이 이 지역 여진족들에 대해 그만큼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필요성이 없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주의할 점은, 16세기 중후반 압록강 방면 여진족과의 관계가 본질적으로 征伐·來朝를 병행하였던 15세기 아래의 對 여진 관계를 기본적으로 계승하면서도 변경 차원에서 축소된 형태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2장에서 서술한 명종·선조대 瘦四郡 지역 여진족에 대한 대응 과정을 보면, 平安兵使·咸鏡南兵使가 伐穀·體探·開諭 과정을 주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때도 驅逐에 대해서는 조정에서의 정책 결정 하에 현지에서의 행동이 이뤄지고 있음을 분명하며,<sup>146)</sup> 조정의 태도 변화에 따라 군사적 적극성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만, 15세기 여진 정벌이 계획 단계에서부터 국왕의 의지가 직접적으로 관철되는 방식으로 수행된 것에 반해<sup>147)</sup> 16세기 중후반에는 지휘관·병력의 특파가 사라지고 현지 지휘관의 주도 하에 계획·수행되는 형태로 변화한 것이다.<sup>148)</sup>

滿浦鎮 등에서 이루어진 宴享·開市 역시 본질적으로 15세기 아래의 회유책이

143) 압록강·두만강 방면 여진족에 대한 인식 차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로는 『成宗實錄』卷240, 성종 21년 5월 26일(정축) 기사의 李季仝의 말 및 『燕山君日記』卷25, 연산군 3년 7월 5일(갑진).

144) 조선은 15세기 후반 압록강 유역에 이주하여 藩籬가 되겠다는 여진인들을 거절하면서, 이들이 三浦와 같은 “腹心之疾”이 될 가능성을 우려하였다. 한성주, 2018 앞의 책, 97-99면. 16세기 압록강 중상류, 특히 瘦四郡 지역에 대한 조선의 장악력은 징근거리에 군현이 염존했던 三浦보다 훨씬 약한 수준이었다.

145) 河內良弘, 앞의 책, 388-393면; 한성주, 2011 앞의 책, 133-143면.

146) 중종대 野人驅逐 시도 당시 조정의 역할에 대해서는 김순남, 2010a 앞의 논문, 66-71면 및 84-85면.

147) 이규철, 2013 앞의 논문.

148) 장정수, 2013 「선조대 對女眞 방어전략의 변화 과정과 의미」 『朝鮮時代史學報』 67, 175면; 朴正珉, 2017 「朝鮮前期の對女眞政策」 『年報 朝鮮學』 20, 140-141면.

축소된 형태로 계승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15세기의 建州三衛, 혹은 동시기 六鎮 藩胡와는 달리 16세기 중후반 압록강 방면의 여진족들에게 受職·來朝를 실시하지는 않고 있으나,<sup>149)</sup> 滿浦鎮 등 邊鎮에서의 宴享·開市를 통해 그 역할을 일부 계승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宴享·開市 역시 조정의 허가 하에 이루어졌음은 명백하지만,<sup>150)</sup> 受職·來朝와는 달리 현지에서의 시행 과정에 대해 조정에서 일일이 관리한 흔적은 나타나지 않는다.<sup>151)</sup>

이러한 연속성과 차별성이 잘 드러나는 것이 대대로 建州衛의 首長을 계승해 온 왕기야 일족 李以難主의 “歸順”이다. 그가 일시적으로 滿浦鎮에 歸順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곧 歸順하여 “來現”하겠다고 했다는 사실은, 建州三衛의 후예들과 조선이 16세기 내내 滿浦鎮을 통해 관계를 지속하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으로서 주목을 요한다. 이러한 현상은 16세기 이래 建州女眞과 조선의 관계가 거의 단절되었다는 기준의 선입견을<sup>152)</sup> 재고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반면 그와의 관계가 조선 조정과는 무관하게 滿浦鎮 차원에서 유지된 것은 建州三衛의 거취에 대하여 조정 차원에서 중대한 의미를 부여했던 중종대 이전과는 구별되는 점이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16세기 중후반 압록강 방면 여진족에 대한 조선의 대응은 특정 목적을 가지고 국가 차원에서 수행되는 ‘대외정책(Foreign Policy)’

149) 『建州紀程圖記』에 따르면 古未介 酋長 金盃斗(=「抄記」의 雪雲 首胡 金倭豆)의 父 周昌哈은 兼司僕으로서 한양에서 8~9년 동안 근무하였다고 한다(“盃斗父周昌哈 向化於我國 賦姓名金秋 曾兼司僕 在京時仕八九年 托以其父歸見事 還其故土 仍不出來云”). 하지만 그는 조선에 “向化”하였기 때문에 兼司僕으로 임명된 것으로, 일반적인 藩胡의 受職과는 달리 취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50) 주115에 인용된 『稗官雜記』의 기사는 잡혀간 조선인을 쇄환한 여진인에게 綿布로 포상하고 宴享을 베풀던 관례를 비용을 이유로 폐지하려는 결정에 반발한 平安兵使 閔應瑞의 의견이 右議政 安琰에 의해 “朝廷已有處分 而藩鎮之官 徑獻所見 甚不可也”라는 이유로 기각되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151) 평안도 현지 차원에서 滿浦鎮에 歸順하는 여진인들을 관리하는 체계를 시행하고 조정에 승인을 요청하거나[『중종실록』 권21, 중종 9년 11월 21일(기묘)], 선조 27년(1594) 南兵使 崔湖가 茄乙波知堡에 開市를 연 것을 감안하면(박정민, 2016 앞의 논문, 97-99면), 宴享·開市의 시행 및 운영은 현지에서 주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52) 徐炳國, 1970 『宣祖時代 女直交涉史研究』, 教文社, 5면; 崔豪鈞, 1993 『宣祖 28年 建州女眞의 朝鮮被擄人 刷還考』, 『李公範教授停年紀念東洋史論叢』, 知識產業社, 679면; 김구진, 1995 「여진과의 관계」 『(신편)한국사』 22, 국사편찬위원회, 349-350면.

에서 일상적 상황 관리를 목적으로 현지 차원에서 수행되는 ‘변경정책(Frontier Policy)’으로 전환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sup>153)</sup> 강경책과 회유책을 함께 활용한다는 것은 15세기와 유사하지만, 정책의 목표가 현상유지로 변경됨으로써 對 여진 관계의 場과 정책 실행의 주체가 변경으로 한정되고, 조정의 직접적 관여가 축소된 것이다. 이는 建州三衛에 대해 조정 차원에서 공세적 대응을 추진했던 15세기 및 왕조의 생존을 위협하는 통일된 여진세력에 대응해야 했던 17세기의 ‘대외정책’ 시기와 구분되지만, 그 차이가 정책의 부재나 관계의 소멸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sup>154)</sup> 16세기 중후반, 조선은 변화된 환경에 맞는 방식으로 압록강 방면 여진족과의 관계를 유지했던 것이다.

## 5. 맷음말

이상으로 압록강 방면 여진족 집단들의 현황과 조선과의 관계를 명종대에서 누르하치의 建州女眞 통합 직전까지의 시기를 대상으로 살펴보고, 그 의미를 조망하였다. 본문에서 밝힌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은 압록강 중상류 지역, 특히 繁四郡 지역에 거주하는 여진족들을 驅逐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명종대 조선 조정은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였으나, 현장에서는 회유책이나 體探을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하고 있었다. 선조대에는 조정이 의욕적 태도를 보이고 현장에서도 유능한 지휘관들이 활약했지만, 결과적으로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진왜란 직

153) 대외정책과 변경정책의 개념은 Matthew W. Mosca, 2013 *From Frontier Policy to Foreign Policy: The Question of India and the Transformation of Geopolitics in Qing China*, Stanford,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에서 차용한 것이다. 다만 Mosca의 “Frontier Policy” 개념이 분절적·지역적인 대외인식과 전략에 보다 주목하고 있는데 반해(p.2), 본고에서는 외부와의 일상적 관계가 변경 차원에서 실행·유지되었다는 측면(p.13)에 주목하고자 한다.

154) 이러한 차이가 사료 측면에서도 중앙 차원의 관찬자료가 충실히 남아 있는 15·17세기 와 「抄記」와 같은 변경 차원의 자료가 작성된 16세기의 차이를 넣았다고 생각된다.

전까지 지속적으로 伐穀 등 소규모 군사행동을 계속하여, 불완전하나마 西海坪의 여진족 部落을 몰아내는 데 성공한 것은 소기의 성과였다.

둘째, 「抄記」의 작성 시점을 전후하여 압록강 중상류 지역에는 16개 部落 550戶 이상의 여진족이 거주하면서 滿浦鎮 등 조선의 邊鎮을 일상적으로 왕래하고 있었다. 아울러 압록강 이북의 建州女眞 중 일부도 滿浦鎮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이는 16세기에 들어와 압록강 방면 여진족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었으며, 조선의 邊鎮에서는 꾸준히 인근 지역의 여진족들과 접촉하며 그들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셋째, 조선은 한편으로 瘦四郡 지역의 여진족 部落을 구축하고자 시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宴享과 開市를 통해 이들을 羈縻하면서 그들과의 관계를 “歸順”으로 분식하였다. 이는 본질적으로 15세기 아래의 연속성을 보여주지만, 정책지향과 담당주체의 변화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보인다. 압록강 방면 여진족에 대한 조선의 지향은 영향력 확대에서 현상유지로 전환되었으며, 조정의 개입은 줄어들고 현장의 비중이 확대되었던 것이다. 이는 ‘대외정책’에서 ‘변경정책’으로의 변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16세기 중후반 압록강 방면은 결코 완전히 평온한 지역이 아니었다. 瘦四郡 거주 여진족 문제는 지속적으로 분쟁을 낳고 있었고, 宴享과 開市를 제공한다고 해서 여진족들의 약탈이 소멸하지도 않았다.<sup>155)</sup> 하지만 대부분은 조선의 邊鎮에 “歸順”하여 宴享과 開市에 참여하였고, 이를 통해 생활필수품을 획득하면서 공존하고 있었다. 조선은 建州女眞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지 않았고, 주요 首長들은 滿浦鎮에 归順하고 있거나 곧 归順할 예정이었다.<sup>156)</sup> 소소한 사건은 있어도, 瘦四郡 문제를 제외하고는 조정의 주의를 끌 정도로 본격적인 충돌은 없었다. 16세기 중후반, 압록강 방면에 대한 현지 차원의 ‘변경정책’은 큰 문제없이 유지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주지하듯이, 그 배후에는 누르하치라는 거대한 씨앗이 자라고 있었다.

155) 尹定善, 『關北誌』 卷9, 「甲山府誌」 古蹟 “設管開市 春秋設饗厚待 每春夏間 未免有零賊出掠江邊農民之患”

156) 「抄記」의 저자는 三衛 中에는 嫌鬱이 없고, 西海坪의 胡人们도 거의 제압하였으며, 다른 곳은 현재 鬱端을 듣지 못했다고 당시의 정세를 평가하고 있다. 「抄記」 52b면.

공교롭게도 「抄記」가 완성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조선은 누르하치가 建州女眞을 통합하였다는 보고를 접하게 된다.<sup>157)</sup> 누르하치의 세력은 部落 연합의 성격을 넘어, 조선 및 명과 대등하게 상대할 수 있는 ‘國家’로 신속히 발전하고 있었다.<sup>158)</sup> 임진왜란 도중 시작된 누르하치와의 접촉은 점차 압력을 더해가며, 滿浦僉使나 平安監司 차원을 넘어서 조선 조정이 직접 교섭해야 할 시급한 문제로 전환되었다.<sup>159)</sup> 여진 사회 내부의 분열에 힘입어 ‘변경정책’으로 현상을 유지할 수 있었던 시대는 가고, ‘대외정책’의 시대가 다시 찾아온 것이다.

주제어 : 煙四郡, 滿浦鎮胡地相距部落多少與據情抄記, 溫河衛, 建州女眞, 대외정책, 변경정책

투고일(2018. 7. 27), 심사시작일(2018. 8. 13), 심사완료일(2018. 8. 30)

157) 『宣祖實錄』卷23, 선조 22년 7월 12일(정사). 해당 기사에 인용된 평안병사의 狀啓에 누르하치와 遼東總兵 李成梁의 밀접한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한 것으로 보아, 직접 접촉은 없었지만 기본적 정보는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58) 유소맹(이훈·이선애·김선민 옮김), 2013 『여진 부락에서 만주 국가로』, 푸른역사.

159) 장정수, 2016 「16세기 말~17세기 초 朝鮮과 建州女眞의 배후 교섭과 申忠一의 역할」 『韓國人物史研究』 25, 134-135면.

〈Abstract〉

Joseon Dynasty and the Jurchens of the Yalu River Valley  
in late 16<sup>th</sup> Century

Lee, Jaekyung \*

This article focused on the situation of the Jurchens on the Yalu river valley and their relationship with the Joseon dynasty from the reign of King Myeongjong (r. 1545-1567) to the eve of Nurhaci's unification of the Jianzhou Jurchens in 1589. Though the late 16th century was a very important period for consolidation of Jurchen society on the north of the Yalu River, previous studies could not properly deal with this period from Joseon's perspective, primarily due to the lack of relevant sources in *Joseon Wangjo Sillok*. This study tried a new approach with a newly explored source, *Manpojin Hojisanggeo Burakdaso yeo Rojeongchogi* (滿浦鎮胡地相距部落多少與擄情抄記, c1588).

In the late 16th century, Joseon dynasty continuously sought to expel the Jurchen people residing in the Four Abolished Counties (廢四郡) on the middle part of the Yalu River Valley. Although Joseon court refrained from taking specific measures on the Jurchen affairs during the reign of King Myeongjong, local officials kept trying to solve the problem by inducing the Jurchens to leave and intimidating them with reconnaissance missions. After King Seonjo (r. 1567-1608) took the throne, the central government enthusiastically tackled the matter, with help of capable commanders on the local ground. Though Joseon dynasty failed to drive all the Jurchens out from the south of the Yalu River, it successfully expelled a troublesome Jurchen group from Seohaepyeong (西海坪) area with constant military measures such as taking crops away before harvest.

On the other hand, according to *Manpojin Hojisanggeo Burakdaso yeo Rojeongchogi*, there resided more than 550 Jurchen households in 16 villages along the middle and upper Yalu River in the 1580s. While some groups in the Four Abolished Counties had

---

\* Lecturer, Department of Korean History, Seoul National University.

military conflicts with Joseon from time to time, most villages in and out of the river maintained ordinary contact with Joseon military bases such as Manpo garrison (滿浦鎮) when they were not at war with Joseon. Also, several groups of the Jianzhou Jurchen north of the river visited Manpo quite regularly. Many Jurchens annually visited Manpo to receive welcoming banquets and buy necessary goods such as salt. Frequent contacts between Manpo garrison and the Jurchen villages suggest that Joseon's relationship with the Jurchen groups in the Yalu River regions was not cut off in the 16<sup>th</sup> century and that Joseon local officials continued to collect information on them from their everyday contact with Jurchen visitors.

In a broader perspective, Joseon's approach to the Jurchen problem basically didn't change from the 15th century: Stick and carrot strategy and ideological legitimization of its superiority. On the one hand, Joseon tried to drive them out from the Four Abolished Counties with use of military force. On the other hand, however, Joseon appeased the Jurchen groups along the Yalu River with banquets and markets on its frontier strongholds such as Manpo. Furthermore, Joseon regarded visits of Jurchens as their "submission" (歸順) to strengthen its ideological superiority over the Jurchen tribes.

However, there was a great transformation in Joseon's approach to the Jurchen tribes in the Yalu River region. In the 16th century, the purpose of Joseon's Jurchen policy changed from enhancing its influence across its border to maintaining the status quo on its northwestern frontier. With the Jianzhou Jurchen divided, Joseon dynasty had no need to actively interfere in Jurchen society. Naturally, local officials held more sway in Jurchen policy as the central government reduced its engagement in everyday events on the border. Planning and executing military operations, as well as receiving Jurchens who visited border bases, became primarily the duty of local officials. In this regard, there was a shift in Joseon's relations to the Jurchens from a "foreign policy" to a "frontier policy".

**Key Words :** Four Abolished Counties (廢四郡), *Manpojin Hojisanggeo Burakdaso yeo Rojeongchogi* (滿浦鎮胡地相距部落多少與擄情抄記), Onhawi (溫河衛), Jianzhou Jurchen (建州女眞), Foreign Policy, Frontier Policy